소년단

1961.5

모범

청소년 학생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되기 위하여
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혁명 전통을 본 받으라!
모두다 천리마 학급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라!

5.1절에 제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에서

이들이 누구들일가?

우리는 얼마 전에 남포 유자녀 학원에 간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곳 학원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취재해다 본호에 편집하고 있을 때 마침 이곳 학원 제 8분단 동무들이 영예의 《모범 분단》칭호를 받았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곧 사진기를 메고 다시 이들을 찾아 갔다. 이들이 어떻게 이 영예를 지니게 되였는가를 본호 12 페지를 보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번 호에도 동무들이 기다리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남포 유자녀 학원과 신파 초등 학원 소년단원들의 행복한 생활과 그들 속에서 꽃피여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특집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에 빛나는 남포 유자녀 학원 제 8분단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쏘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 아저씨가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 온 이야기, 아동단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 소설 《가장 귀중한 것》, 그림 이야기—기양 뜨락또르 공장 로력 영웅 김 금산 아저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소년단 5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윤 복진(2)
로력 영웅 김 금산 아저씨……………………글 김 병익 그림 백 대진(9)
사랑의 집……………………최 옥선 김 춘규(12)
그는 첫 아동단원 이였다. (5)…………글 박 응호 그림 최 순천(19)
네 오누이……………………최 죽산(22)
소설 — 가장 귀중한 것(1)……………………강 효순(26)
학원의 참된 주인 ……리 광수(29)
사람의 첫 우주 비행은 이루어 졌다. …………리 용호(34)
소년 단원들의 동시 동요를 읽고……………리 원우(36)
표지 1면……로력 영웅 김 금산 아저씨와 소년단원…………리 종록
표지 2면……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를 받은 남포 유자녀 학원단 8분단 동무들
표지 3면……구라이다 만드는 법 ………항공 구락부
표지 4면…봄 날의 모란봉 기슭…………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본 받자!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2 회)

윤 복 진

☆ 언제나 동무들 속에서

원수님은 어린 시절 자기 동무들을 무척 사랑하셨고 동무들은 원수님을 몹시 따랐습니다.

원수님 집은 비록 작아도 해만 뜨면 넓은 마당에는 어린 동무들이 가득 모여 들었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하신 할아버지는 넓은 마당과 뒤'뜰에 가지 가지 과실 나무를 많이 심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봄이면 살구, 복숭아, 앵두, 추리, 그 밖에도 많은 과실 나무 꽃들이 잇달아 피였습니다.

원수님 집은 아름다운 꽃 속에 둘려 쌓였고 가을이면 향기로운 열매 속에 묻혔습니다.

그 때 부자놈들은 한 송이의 꽃도 저 혼자 돌아 앉아 보고 즐기군 하였습니다.

그 놈들은 키보다 훨씬 높은 담을 성처럼 쌓고 사나운 개까지 두어 뜰 안에 핀 꽃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 인정이 많은 원수님 집에서는 한 송이의 꽃도 온 이웃과 함께 즐기였습니다. 한 알의 열매도 무르익으면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원수님의 할아버지는 터 밭에 무우, 배추며, 오이랑, 가지랑 고추이며 가지가지 푸성귀를 푸지게 잘 가꾸어 늘 이웃과 나누어 자셨답니다. 뜰앞에는 아담한 꽃 밭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할아버지를 배워서 손수 고운꽃도 심고 아침 저녁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참으로 원수님 집은 마을의 공원처럼 되였습니다.

원수님이 탄생하신 만경대는 아름다운 고향입니다. 원수님이 어린 시절 만경봉에는 아름드리 큰 소나무들이 우거지고 봄이면 산 기슭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였습니다. 푸른 록음이 우거지는 시절이면 온갖 산 새들이 찾아 와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도 왜놈들은 제놈들이 망해 갈 무렵에 그 훌륭한 소나무들을 망탕 찍어 없애 버렸습니다.

이름 높은 만경봉에 올라 서면 일만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한 눈에 다 바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원수님 나신 이 아름다운 고향을 만경대(萬景台)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만경봉에는 모란봉에 우뚝 솟은 을밀대와 비슷한 대를 지였고 이 높은 대 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까지만 하여도 《만경대》를 세웠던 주추'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만경봉에 올라 서면 평양성이 멀리 신기루처럼 바라 보이며 흘러 가는 푸른 대동강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만경봉은 꽃 피는 봄이나 록음이 우거진 여름이나 나무 잎 단풍 드는 가을이나 어느 때나 사시장철 아름답습니다.

강도 왜놈들이 비록 36년 동안 우리 나라를 짓밟고 정든 고향 땅을 빼앗았댔지만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빼앗아 갈 수는 없였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자기의 고향과 조국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의 마음은 꺾어 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겨하며 아름다운 고향을 사랑하는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동무들을 데리고 만경봉으로 대동강 기슭으로 다니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원수님은 씩씩하고 착한 동무를 좋아했습니다. 동무들을 위하여 즐거운 놀음을 생각해 내였고 언제나 재미있게 조직하였습니다. 무슨 놀음이거나 여럿이 즐겁게 씩씩하게 놀 수 있도록 짜군 하였습니다. 말타기, (수수'대 말) 왜놈 잡기 놀이, 군사 놀이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놀음에는 언제나 어린 원수님은 대장이 되였습니다.

수수'대 말

수수'대 말 달리네
꼬마 군대 나가네

온 마당이 쿵쿵,
먼지 펄펄 날리네

온 동네가 쿵쿵,
구름처럼 날리네

천리마가 달리듯
우리 군대 나가네.

수수'대 말 달리네
꼬마 군대 나가네

어데라도 나가네
거침 없이 나가네

백두산이 높아도
끄마 군대 오르네

두만강이 깊어도
우리 군대 뛰 넘네

☆

수수'대 말 날쌔네
우리 대장 앞섰네,

막대 총이 땅땅,
왜놈 군대 내빼네

우리 대장 만세 소리
만경봉에 쩌르릉.

(만경대 시초 중에서)

어린 원수님은 군사 놀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놀음에서도 대장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무들은 언제나 《우리 대장》으로 일러 왔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나이에 비해서 무척 힘이 세였습니다. 그러나 힘만으로 《우리 대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놀음에서나 자기 편이 이기도록 잘 조직하고 비록 힘이 약한 동무도 잘 고무 추동하여 강한 동무로 만들었습니다. 놀음이나 일에 있어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제때에 공평하게 갈라 놓기 때문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적은 일에나 큰 일에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원칙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정의를 굳게 지켰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원수님은 동무들로부터 언

제나 시비를 옳게 잘 가른다고 해서 《륙군 판사》라고 일러 왔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모든 놀음에서 언제나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만경봉 우에 있는 《큰 씨름 터》에서 자기 보다 두 살이나 더 많은 동무와 씨름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 동무는 나이도 많고 힘도 세였지만 씨름 수는 원수님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맞붙어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누엿누엿 저녁 해가 넘어가고 만경봉에는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어디, 래일 또 해보자.》하고 원수님은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날 당장 승부를 가르지 못한 원수님은 참 분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잠'자리에서 뒤치락거리며 래일 아침 무슨 수를 용케 써서 이길 것인 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물레를 저으며 실을 뽑던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얘 증손아! 넌 여태껏 자질 않고 무얼 그리 생각하니?》

《할머니, 오늘 첫 씨름에 이기지 못했어요.》하며 자기는 나이가 두 살이나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삼시로 죽만 먹기 때문에 힘을 다 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인차 뉘우쳤습니다. 《할머니에게 공연히 그런 말을 했구나.》하고 이불을 쓰고 잠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도 이내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간 쉬여서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쉬는 참에 만경봉 기슭 아래에 있는 《약물 터》로 내려 갔습니다. 《약물 터》는 깎아 지른듯한 벼랑 아래 있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벼랑을 타고 내려 가서 바위 틈에서 솟아 나는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원수님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운이 부쩍 났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달라 붙어 마침내 힘센 그 동무를 쿵하고 보기 좋게 넘어 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약물 터》는 원수님의 아버님이 즐겨하시던 곳이였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쉬실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물에 세수도 하시고 랭수 마찰도 하시였습니다.

아버님은 빼앗긴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밤 깊도록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휴식도 하셨으며 왜놈들과 싸우기 위해 언제나 몸도 튼튼히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무를 무척 사랑하시던 원수님은 그 후 칠골 창덕 학교 시절에도 어린 동무들을 위하여 책 뚜껑도 잘 만들어 주며 학습장 첫 줄에 본보기 글'자를 똑똑히 잘 써 주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뒤 떨어진 자기 반 동무들을 찾아가서 밤 늦도록 도와 주었고 특히 어린 동무들을 친 동생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칠골 창덕 학교 앞에는 작은 시내가 있었습니다. 여름 날 소낙비가 나리면 시내'물이 붓고 불어 어린 학생들이 건널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런 날이면 원수님은 소낙비를 함빡 맞으면서 나 어린 동무들을 한 사람씩 업어 건너다 주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칠골의 어린 동무들은 원수님을 친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 원수님은 언제나 동무를 사랑하셨고 또 많은 동무들 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 로동 일가에서

원수님은 어린 시절 로동을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원수님 집은 훌륭한 로동 일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 농사 일의 주장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84 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일'손을 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 비가 오는 날에도 쉬시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멍석이랑 자리를 매셨고 농사에 필요한 연장이랑 살림살이에 쓰이는 물건을 손수 만들어 쓰시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에서 버린 헝겊 쪼박까지도 모아서 노끈을 꼬아 훌륭한 자리를 매셨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원수님 본가에 보관되여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무척 좋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가난에 시달리고 지주놈들에 들볶이였습니다. 그 우에 원수님이 15 개 성상 긴 세월을 동북의

눈 벌판에서 왜놈들과 싸우실 때 할아버지는 어려운 한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왜놈, 헌병, 경관, 형사 나브랭이, 개놈들의 앞잡이들이 밤 낮 없이 눈을 까 뒤집고 기여 들었습니다. 놈들은 총 칼로 위협하고 갖은 만행을 다하면서 온 집안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 십년을 밤 낮 없이 놈들의 성화에 할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울분한 가슴을 갈아앉히기 위하여 담배를 많이 피지 않을 수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잎 담배만 피웠습니다. 왜놈 시절에는 왜놈들이 파는 담배는 안 사 피우신다 하시고 손수 심은 담배를 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였을 때에도 늙은 내가 나라의 것을 축내여서는 안된다 하시고 손수 담배를 심으셨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하신 할아버지를 남달리 존경하였고 할아버지의 근면한 로동 생활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못하지 않게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농사 철에는 논밭 일을 도우시며 농사 일이 좀 덜 바쁠 때는 물레를 저어 실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고 실을 뽑았던지 어둔 밤에도 등'불을 켜지 않고 할머니는 실을 잘 뽑았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 쓰시며 언제나 어두운 방에서 실을 뽑으실 때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삯 무명 나이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형직 선생을 공부시켰던 것입니다.

가난한 원수님 집은 기름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 때는 농촌에서는 왜기름(석유—왜놈들이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해서 그때 사람들은 왜기름이라고 하였습니다.)으로 불을 켰습니다. 왜놈을 미워하는 할머니는 한 푼의 돈이라도 왜놈들 손에 들어 가지 않게 왜기름을 사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 머리나, 밭 둑이나 산 기슭에 아주까리를 심어서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불도 켰던 것입니다.

어둔 밤을 모르지요.

평양 성안 왜놈 집은
대문에도 밝은 전등
원수님의 고향 집은
아주까리 등잔'불

가물가물 등잔'불도
밤마다 못켰대요.
할머님은 윙윙,
달빛 아래 실 뽑고

할아버진 삭삭
별빛 아래 멍석 매고

어머님은 쿵쿵,
절구 방아 찧었대요.

☆

오늘은야 좋은 세상
어델 가나 밝은 전등
첩첩 산'골 마을에도
라지오는 노래하고
꽃봉오리 우리 동무
어둔 밤을 모르지요.

(만경대 시초 중에서)

아버님도 학교에서 돌아 오시면 손 발을 둥둥 걷어 올리고 농사 일을 힘껏 도왔습니다.

어머님도 어느 하루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밤에는 무명을 짰습니다.

그리고 삼촌 아버님(형록 선생)과 삼촌 어머님도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삼촌 아버님은 집안 농사일 뿐만 아니라 삯 밭갈이, 삯 동, 갈품을 팔아 어려운 살림을 보태여 나갔습니다.

삼촌 어머님은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집 와서 보니 이 원수님 집 안 어른들은 잠도 없는 분들이였지요.》

이렇게 원수님 집은 밤 낮 없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에서 때때로 원수님의 아버님과 세째 삼촌인 형권 선생의 옥바라지(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옷이나 음식을 해 보내는 것)와 독립 운동 자금도 대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근면한 로동 일가에서 자라나신 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로동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그 시절의 로동의 고달픔과 로동의 고상한 열매를 잘 리해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원수님은 뜰 안에 꽃 밭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하여 할아버지를 도와 채소 밭에 물을 대 주는 일, 씨 솎음 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힘껏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만경봉에 진달래를 비롯하여 많은 나무들을 손수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이 때 원수님 집은 한 치의 자기 땅이라군 없었습니다. 비록 남의 땅이요 남의 산이나 이것이 다 조국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철따라 나무를 심으며 잘 가꾸며 먼 후'날에 아름다워질 우리 조국을 그렸던 것입니다.

어린 원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 나면 마당과 행길을 깨끗이 쓸며 몸을 단정히 하며 언제나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어머님을 도와서 닭 모이도 주고 돼지죽도 날라다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원수님은 어머님을 따라 자주 논 밭에 나가서 농민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며 밭을 갈며 김을 매여 귀중한 곡

식을 걷우어 들이는 가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농사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가를 잘 리해하셨습니다.

그 때 원수님 고향은 논밭이 척박하고 매말랐습니다. 해마다 밭 곡식이 한창 자라날 시절에는 날이 가물었고 모내기 때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동강 물을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려 높은 밭도 논으로 풀고 논 밭에는 언제나 물이 치렁치렁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였습니다. 푸른 대동강 물을 바로 발 아래 두고 논 밭에는 가물이 들어 논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애써 심고 가꾼 곡식은 말라 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집안이 떨쳐 나서 용드레로 밤 낮으로 물을 푸고 높은 밭에는 물 동이로 여다 날라 붓군하였습니다.

원수님의 집도 바로 그렇게 애타게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물이 바른 이 고장에서 논 농사는 아주 적게 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논 농사도 보잘 것 없는 수확을 걷우게 되였습니다. 때로는 전혀 수확을 걷우지 못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만경대 농민들은 주로 피와 조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수님은 고향의 눈물 겨운 사정을 눈여겨 보며 가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대동강 푸른 물

대동강 푸른 물을
우리 논에 못 대나
　　흘러 가는 저 강물
　　높은 밭에 못 올리나

해마다 여름이면
용드레로 물 푸고
　　땀을 함빡, 먼 밭에
　　물동이로 여 나르고…
대동강을 옆에 두고
논 밭에는 가물 드나

　　나 어린 원수님은
　　가슴 깊이 생각했네
☆
오늘은야 대동강물
넓은 들에 흘러 드네

원수님은 푸른 강물
산 우에 올리셨네.
(만경대 시초 중에서)

원수님은 그후 동북에서 돌아 와 칠골 창덕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일요일이면 고향 집에 와서 농사 일을힘껏도왔습니다.

그때 원수님 집은 소 한 마리도 못 매였습니다. 지주놈의 소 한 마리를 네 집이 얼러서 매였습니다. 그래서 한창 바쁜 농사 철에는 소가 발랐고 사람들이 소 대신 김 매기 후치를 끌어야 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원수님은 집안 어른들을 도우려고 밭에 나와서 김 매기 후치를 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너는 공부나 잘 해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걸 끌겠니.》하고 굳이 말리셨습니다.

그러자 원수님은 두 팔을 둥둥 걷어 올리시면서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한 번 보시겠어요.》하고 후치 멜방을 메셨습니다.

이날 원수님은 넓은 밭에 묵은 김을 하루 종일 후치로 다 매셨습니다. 그때 원수님은 열 세살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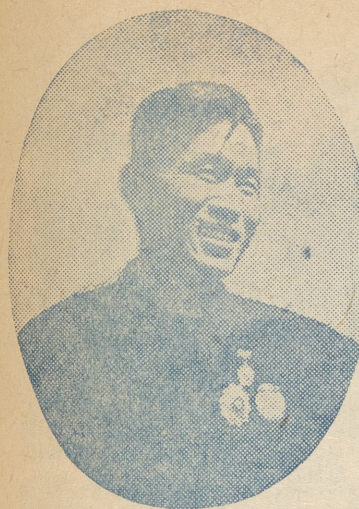
원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동북에 들어 가서 소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아버님이 시키는 일을 곧잘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둔 밤이라도 아버님의 동지들 간에 긴급히 알려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어린 원수님은 어김 없이 전달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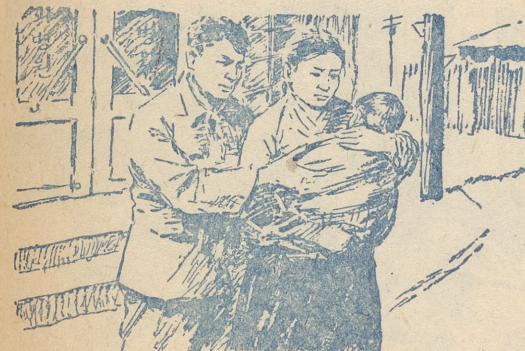
혁명 사업에 몰두하신 아버님은 집안 일을 모두 보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무척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어머님을 도와서 어린 동생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원수님은 동생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두었다가 동생을 주고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맛 있는 과자를 사다 주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고 목재소에 가서 톱 밥을 나르며 어머니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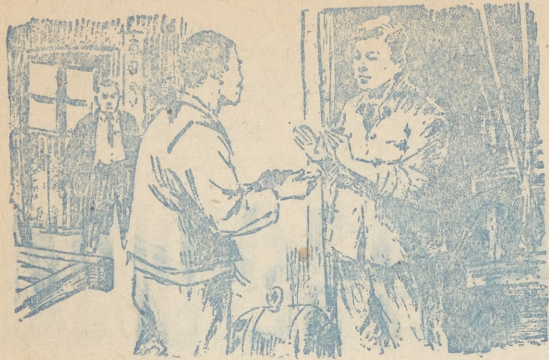
이렇듯 어린 시절의 원수님은 로동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로력 영웅 김금산 아저씨

글 김병익　　　　그림 백대진

① 김 금산 아저씨가 열 두살 때다.
밥 한 뙈기 소 한 마리 없는 아저씨네는 지주놈의 땅 3,000평을 빌어 농사를 지었다. 찌는듯한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보습을 대면 어린 아저씨는 형님과 함께 앞에서 끌어 밭을 일궜다.
이렇게 소처럼 일했으나 가을이면 지주놈에게 다 털리고 빈 키를 들고 돌아 섰다. 가난은 날이 갈수록 더 해 갔다.

②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아저씨는 열 여섯 살 때부터 해주에서 철공소 견습공으로 고된 일을 했다.
아저씨는 풀무질을 하며 너무도 곤해 졸다가 자본가놈의 채찍에 얻어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모리다》란 일본 기술자놈은 배워 주지 않았다. 아저씨는 소제하는 척 하고 그놈의 방에 들어 가 곁눈질로 자동차 부속품에 에나메르 칠하는 법을 알았다.

③ 그 후 아저씨는 의주 철공소로 일'자리를 옮겼다.
한번은 심한 병으로 달경이나 앓았으나 집 식구들의 끼니를 잇기 위해 채 낫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다가 맏 아들 경선이까지 모진 병이 들어 병원마다 찾아 다녔으나 돈 한푼 없다고 받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끝내 맏아들 경선이를 죽이고 말았다.

④ 한번은 금산 아저씨가 일해 주고 끼니를 보탬 하려고 농촌 마을에 나갔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 판대기에 못을 박고 옥수수 이삭을 훑는 것을 봤다. 순간 아저씨의 머리 속에는 옥수수 탈곡기를 만들 생각이 피뜩 들었다.
《하라는 일은 하지않고 이놈아 네 주제에 연구가 뭐야!》 자본가 놈은 귀뺨을 치면서 아저씨가 연구하던 것을 개굴창에 차 던졌다.

⑤ 한번은 어떤 농촌 할아버지가 고장난 발동기를 가지고 찾아 왔다.

《참 수고했네》 할아버지는 좋아 하면서 아저씨에게 국수나 한 그릇 사 자시라고 돈을 주셨다. 이것을 본 자본가놈의 아들이 일러 바쳤다.

《기계가 닳는건 생각지도 않는구나, 당장 내 놔, 이놈!》 자본가놈은 뚱뚱한 배를 내 밀고 이렇게 소리치며 돈을 빼앗았다.

⑥ 어느 날 최 형준이란 아저씨가 좀 늦게 공장에 왔다.

《나쁜 놈, 온 밤 술을 처먹고》 하면서 자본가 놈은 생트집을 걸며 형준 아저씨의 귀뺨을 때렸다. 아저씨는 격분하여 대들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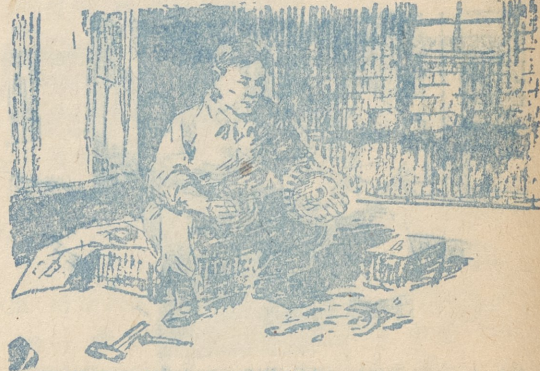
로동자 아저씨들은 말리는 척 하면서 자본가 놈을 붙잡았다. 그러자 형준 아저씨는 자본가 놈을 반주검이 되게 때려 줬다.

⑦ 드디여 8.15 해방이 되였다. 공장의 주인—나라의 주인으로 된 아저씨는 사리원 련와 공장에서 벽돌 성형기 운전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아저씨에게 훌륭한 집을 마련해 주었고 석탄까지 실어다 주었다. 여섯 식구의 쌀을 타 실으니 리야까로 거의 하나가 되였다.

새 집들이 한 날 아저씨네 온 집안 식구들은 당과 수령의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자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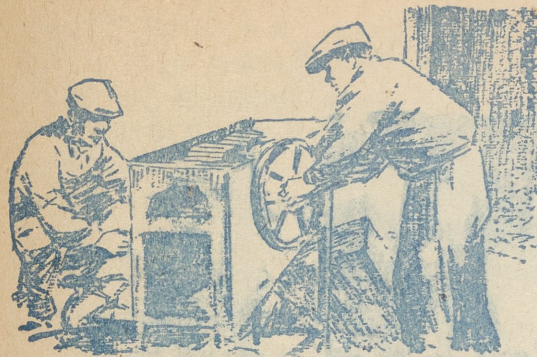
⑧ 아저씨는 기계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한 번은 견습공이 그만 기계에 고장을 냈다. 이 기계를 고치자면 적어도 보름은 걸려야 한다. 그러자면 그 동안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

큰 일이였다. 아저씨는 끼니를 잃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끝내 손 쉽게 고쳐 냈다. 그리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고 아저씨는 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표창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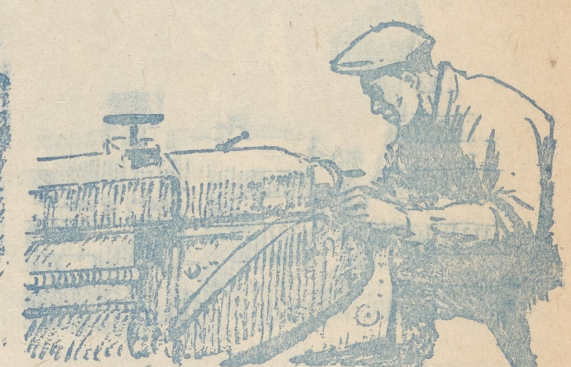
⑨ 미제 원쑤놈들이 전쟁의 불을 지르자 아저씨는 전선에서 원쑤를 무찌르는 마음으로 전시 철도 복구대에 동원되였다. 한번은 마동 철교를 복구하고 있을 때 원쑤놈의 쌕쌔기 두 대가 달려 들었다. 아저씨는 피할 념도 하잖고 목숨을 걸고 끝내 기한 내에 이 일을 해 내였다. 그리하여 그날 밤도 포탄을 실은 기차가 기적 소리 요란히 어 철교를 지나갔다.

⑩ 1956년 1월 어느 날이였다.

아저씨는 신문을 보다 말고 문득 《옥수수는 밭 곡식의 왕이다》라는 큰 '글'자에 눈을 멀구었다. 그 옛날 연구하다 못한 옥수수 탈곡기 생각이 났던 것이다.

아저씨는 곧 창안에 착수했다. 일하고 돌아 와 맨 손으로 밤마다 하는 일,

아저씨는 치차 두 개를 정으로 깍노라고 꼬박 두달 밤을 새웠다. 그러나 직장 일은 하루도 결근한 일이 없었다.

⑪ 막상 하자고 달려 붙어 보니 없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아저씨는 기계 부속 하나를 얻으려고 부근의 야장'간이란 야장'간, 철공소라는 철공소는 다 돌아 다녔다. 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하여 드디여 반년만에 연구에 성공하였다. 아저씨는 뛸듯이 기뻤다. 집단에서는 아저씨의 첫 성과를 축하해 주었다.

⑫ 1956년 3월 당은 아저씨의 연구 성과를 높이 칭찬하고 기양 농기계 공장에 와서 일하게 해 주었다. 당은 아저씨에게 기사를 부쳐 돕게 했다. 아저씨는 당의 고마운 배려에 감격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옥수수 탈곡기 만드는 데 바쳤다.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자면서 8개월 만에 드디여 2대의 옥수수 탈곡기 시험 제작에 성공하였다.

⑬ 1956년 11월 초순 어느 날이였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 아저씨가 일하는 공장에 오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아저씨가 창안한 옥수수 탈곡기를 보시고 몹시 기뻐하시면서 이 기계 이름을 《김 금산식 옥수수 탈곡기》라고 부치라고 치하해 주셨다. 아저씨는 너무도 감격하여 흘러 내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⑭ 김 일성 원수님의 격려의 말씀에 고무된 아저씨는 계속 옥수수 련마기, 감자 감분기, 양수기 등 수 십종의 농기계들을 창안하였다. 아저씨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리드갓다》(인조 섬유 만드는데 필요한 갈대를 잘게 써는 기계)라는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중 1958년 아저씨는 뜨락또르를 만들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마침내 이에 착수하게 되였다.

⑮ 아저씨와 함께 처음 이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뜨락또르를 마들자고 나섰을 때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아직 만들어 보지 못한 그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맨 손으로 만들어 내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나 오직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아저씨는 여러 로동자 아저씨들과 함께 없는 것은 찾아 내고 적은 것은 만들어 내면서 밤 낮으로 애써서 드디여 한달 남짓한 사이에 훌륭한 뜨락또르를 만들어 냈다.

⑯ 1958년 11월 13일 첫 뜨락또르를 몰고 당 중앙 위원회에 올라와 수상 동지를 뵙는 로동자 아저씨들 속에는 김 금산 아저씨의 자랑스러운 얼굴도 섞여 있었다.

그 후에도 훌륭하게 일하여 아저씨는 1961년 2월에 영광스럽게도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다. 지금도 아저씨는 이곳 여러 로동자 아저씨들과 함께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 75마력 중형 뜨락또르를 만들어 선물 할 결의 밑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고 있다.

—남포 유자녀 학원 단에서—

글 최 옥선 그림 김 진항
김 준규

창문을 열면 동양에서도 그 높기로 이름 난 제련소의 굴뚝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고 멀리 황해 바다 푸른 물'결이 바라보이는 곳— 여기 공업 도시이며 항구 도시인 남포의 동쪽 기슭에 사랑의 집—행복의 집 남포 유자녀 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도 여기서는 당과 원수님의 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800 여 명 원아들의 랑랑한 글 읽는 소리, 노래 소리, 웃음 소리 그칠 줄 모른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 실험 실습실, 강당 등 온갖 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2층 벽돌 집 교사, 창문 마다에 해'빛 유난히 빛나는 아담한 4층 기숙사, 인민 학교에서부터 초중, 기술 학교 형님들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곤색 교복에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즐겁게 공부하며 뛰노는 모습, 어찌 누가 이들을 보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따뜻한 잠'자리, 그 무엇이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돌봐 주는 어머니—당이 있다.

그러기에 이 학원 제 8 분단 위원장 윤 태괄 동무는 자기의 작문에 이렇게 썼다.

행 빛
행빛 - 이는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태여난 글자인
것 같다. 왜냐해면 우
리들에게는 오직 행빛이
있을 뿐 불행이란 모르
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태괄동무 하나의 마음이겠는가! 이곳 학원 전체 원아들이 느끼는 한결 같은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들의 생활인들 흥겹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들 많지 않겠는가.

그럼 다음에 이처럼 행복한 이곳 원아들의 생활에 있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중에 몇가지를 추려서 소개한다.

☆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영예의 《모범 분단》 칭호를 받은 제 8분단에서—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 그리고 친척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쑤를 잊지 말아야 한다.…우리의 원쑤는 미국놈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이다. 그 놈들에 의하여 동무들의 부모들이 학살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1958년 12월 21일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학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다. 8 분단 동무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거이 모두가 지난 해 8월 여러 학교에서 모여 온 동무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업 성적도 각이했고 말씨도 모두 달랐다.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아이들의 말씨가 서로 다르다고 저저마다 배를 글어 쥐고 웃는 바람에 귀중한 45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분단 위원장인 윤 태괄이와 학급장이며 단 위원인 손 명준이는 분단 위원들과 그리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함께 이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세우기 위해 여러가지로 애를 썼다.

때로는 늦게까지도 의논했다.

명준이와 태괄이는 분단 위원회의 결정대로, 학원에 오셔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분단 동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분단 동무들은 방학에 집에 돌아 갔다가 어머니나 친척들에게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는가를 똑똑히 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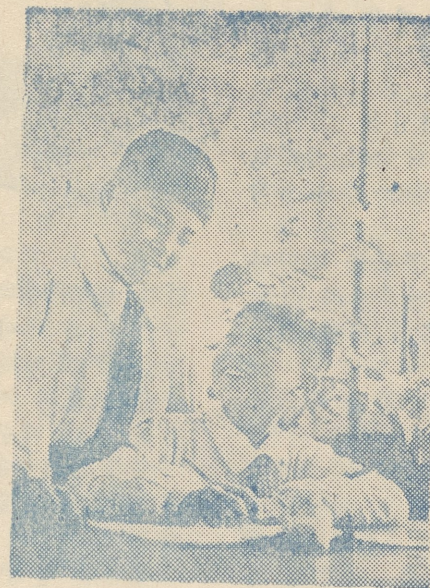
곧 분단에서는 《최우등의 성적으로 부모의 원쑤를 갚자!》 라는 분단 총회를 가졌다.

분단 총회 때 리 병수 동무가 뛰여 나와 원쑤놈들에게 생매장 당한 아버지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동무들은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잘해서 당과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윤 태괄 동무(왼편)와 손 명직 동무

궁 종성, 리 재걸 동무들은 인민반 아이들보다도 글을 잘 쓰지 못했고 김 창봉, 양 장록 등 여섯 동무들은 구구도 제대로 몰랐다. 분단의 학업 성적은 말할 여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수업 시간에 작란만 했다.

태괄이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의논하고 그들에게도 공부에 취미를 부치게 하며 분단 전체 동무들이 45분을 귀중히 보내도록 할 문제를 의논했다. 그리하여 김 경성 동무에게는 매일 선생님이 들어 오기 전에 흑판 지우개를 털어다 놓게 했고, 리 재걸 동무에게는 교탁을 바루 놓는다든가 아이들이 학습장과 교과서를 꺼내 놓고 기다리게 하는 일 등을 맡기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작란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가 우선 공부에 취미를 부치도록 한 문제라도 선생님의 물음에 잘 대답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곧 벽보, 속보에 내 실

군 하였다.

명준이와 태팔이는 아이들이 그 날 배운 것을 그 날로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생활실마다 돌아 다니며 공부를 도왔다.

그리고 분단 위원회에서는 모든 동무들이 복습장을 가지게 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날 배운 데서 시험을 쳤다. 시험 문제는 분단 위원들이 먼저 다 알고 냈다. 점수도 분단 위원들이 나누어 매겼다. 어떤 때는 동무들의 학습을 돕느라고 밤이 깊어 가는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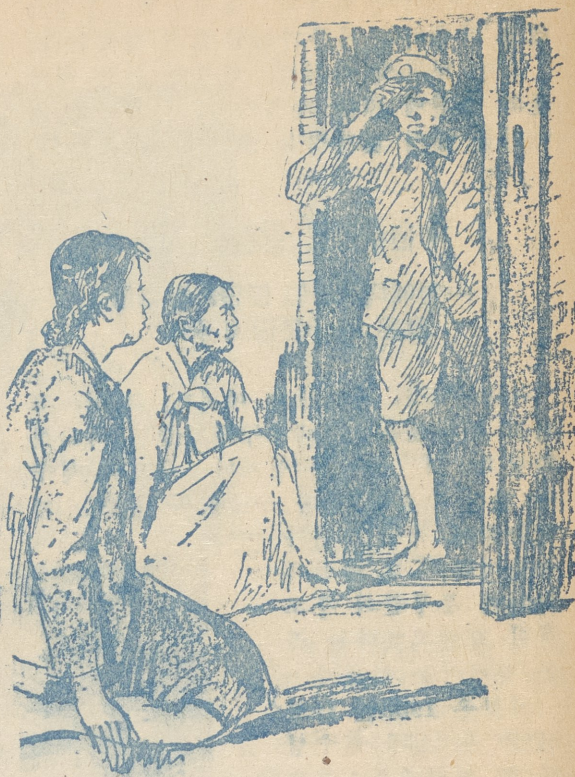
한번은 분수의 감'법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 자자, 애들아!》 11시 싸이렌이 울리자 잠이 많은 어떤 동무들은 밀려 오는 잠을 물리치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이만한 곤난도 못 물리치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 대로 우등, 최우등을 70% 이상 만들 수 있겠니?》 태팔이의 이 말에 위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애쓰다가 선생님을 찾아 갔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들이 생활실에 돌아 와 자리에 누었을 때는 벌써 새벽 3시였다.

다음 날 위원들은 분단 동무들 저마다의 복습 노트에 흐뭇한 마음으로 점수를 매기였다. 이것은 위원들이 애써 거둔 귀중한 열매였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은 분단 동무들 누구나의 심장마다에 다 고동쳤다. 리 원범이는 받아 쓰기 문제로 받은 한 문장을 600 번이나 써서 분단 위원인 리 병선이처럼 글씨를 곱게 쓸 수 있게 되였다. 박 정선이는 분단 동무들 앞에서 구구도 모르는 궁 종선이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종선이는 정선이가 찾아 갈 때마다 《그만 둬! 네가 뭐 선생님이니?》 하면서 주먹을 흔들며 딴 데로 내 빼군했다. 이러한 종선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182 번이나 찾아 가 도운 정선이의 뜨거운 마음에야 그도 끝내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 분단의 학업 성적은 80 %가 우등, 최우등으로 되였다.

어느 날 밤 선생님을 찾아 간 정선이는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다. 산수 공부를 하다가 암만 애써도 모를 문제가 있어 선생님을 찾아 달아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알아 보니 선생님은 상 비석동 마을로 선전 사업 때문에 나가셨다는 것이였다.

순간 정선이는 (선생님을 찾아 가서라도 이 문제를 꼭 알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책을 안은 채 생활실을 나와 단숨에 동 사무소를 향해 뛰였다.

동 사무소에 간 그는 선생님이 가신 집을 알고 찾아 갔다.

《네가 어떻게 왔니?!》 선생님은 무슨 바쁜 일이나 있어서 찾아 왔는가 해서 약간 놀라시는 기색이였다. 그러나 정선이가 학습하다 모를 문제가 있어 찾아 왔다고 하니 선생님은 물론 강연회에 오셨던 온 마을 어머니들이 모두 감탄했다.

이날 밤 정선이는 선생님이 혼자 오실 것이 걱정되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산수 문제를 다 알고 난 뒤에도 기다려서 선생님을 모시고 학원으로 돌아 왔다.

이런 소년단원들에게 어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뿐이겠는가!

8분단 동무들은 얼마 전에 다른 분단과 함께 학원에서 붉은 넥타이와 수건을 새로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범 분단》 칭호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당의 배려만 받을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새 넥타이를 바꾸어 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더욱 공부 잘하고 소년단 생활에 모범을 보여 반드시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는 날 새 넥타이를 매겠다고 다림질까지 해서 귀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아로 새기고 학업과 생활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는 이들 앞에 그 무엇인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랴!

☆ 분단은 사랑의 가정

우리들은 흔히 학원의 동무들이라면 원쑤놈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빼앗긴 동무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 못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

그들의 집, 그들의 가정인 학원 생활실을 찾아 간 우리는 먼저 학원에서 제일 어린 막내들인 10 분단 (인민반 4 학년) 동무들의 《가정》을 찾았다.

우리가 생활실 문을 열었을 때는 동무들은 아직 교실에서 돌아 오지 않았고 몸이 좀 편치 않아 방에 누어 계시던 어머니 (교양원 강 금례)가 일어나 동무들의 옷에 단추를 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머니와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누구인지 씨근거리며 달려 와 문을 여는 동무가 있었다. 그는 낯선 손님들이 있었지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 식사 안 하셨어요?》하고 묻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한 옆에 놓인 밥상을 열어 보이시며 《왜 밥을 안 먹었겠니, 자 이렇게 많이 먹었다. 너 내가 걱정이 돼서 왔구나, 지금 공부 시간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자 《어머니, 휴식 시간에 왔어요.》 하고 그는 빙긋 웃어 보이고는 문을 닫고 달려가는 것이였다.

이 동무가 왔다 간 후에도 많은 동무들이 어머니를 찾아 와 보고 가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무한히 행복해 하시며 《저 애들을 내 아들 딸과 누가 다르다 하겠습니까?》 라고 자랑스러이 말하는 것이였다.

지난 겨울 방학이였다 한다. 어머니나 친척들이 있는 동무들은 모두 고향으로 가고 생활실에는 김 화실, 한 봉남, 송 학실 동무들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교양원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못하시며 앓기 (신경마비) 시작하였다. 세 동무는 어머니 병이 걱정이 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곧 병원에 련락했다. 그리고는 그 새가 바빠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떠났다. 아직 이른 새벽이여서 컴컴한데 밤 새도록 눈이 와서 발이 눈에 잠기군 하였다.

한 동무는 솔 가지를 꺾어 들고 눈을 쓸며 앞장 서고 두 동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이끌고 가는데 차가 왔다. 병원 선생님들은 감격해 하시며 어머니의 병을 성의껏 치료하여 주어 곧 일어 나시게 되였다.

어머니 병이 나은 얼마 후 3.8 국제 부녀절 날이였다. 어머니는 이날도 동무들이 잘 자는가 해서 침실을 돌아 보고는 밤 늦게 잠'자리에 돌아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베개 밑에는 《어머니의 명절 3.8 국제 부녀절을 축하합니다.》라고 곱게 새겨 쓴 선물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속에는 고운 양말과 늙고 일하여 거츠러진 어머니의 손과 어린 딸의 두 손을 마주 잡은 그림을 그린 우에 짧막하게 쓴 편지 한장이 있었다.

《어머니, 명절 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만 하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인젠 늙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며 고생하여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부터라도 더 늙지 않게 하기 위해 어머니를 애 태우지 않겠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어머님 일도 힘껏 돕겠습니다. 어린 딸 여실》 어머니는 이 편지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그만 감격의 눈물을 지으시며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어찌 기특한 마음—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에게 뿐이랴! 한 형제처럼 한 가정에서 사는 이들 사이에는 또 얼마나 두터운 사랑들이 깃들어 있는 것일가!

그러기에 아침 잠에서 깨여난 동무들

은 《누가 내 양말을 이렇게 빨아다 놓았구나》, 《누가 내 수건을 이렇게 …》 하고 서로들 바라보며 더 말을 못하는 일들이 드문한 것이다.

남 몰래 진심으로 동무를 돕는 일은 이 분단 동무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만 김 여실 동무에 대한 이야기만 좀 더 들어 보기로 하자.

김 정화는 누가 자기 치마 자락을 좀 모르고 밟아도 뾰루퉁해서 대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동무들과 싸웠다. 공부 시간에도 누가 자기 기분을 조금만 다치면 왕왕 소리를 내여 울어 분단 전체 동무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군했다.

항상 옷도 더럽게 하고 다니며 학용품도 어지럽게 하고 다니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무들은 모두 그의 곁에 가기 조차 꺼려하게 되였다.

그러나 분단에서는 인내성 있게 동무를 돕군하는 여실이에게 정화를 도와 줄 것을 분공하였다.

여실이는 정화 곁에 앉아 공부하면서 항상 학습 문제를 친절히 설명해 주군 하였다. 그러나 정화는 고개를 돌리고 듣지도 않았다. 그래도 여실이는 정화의 수건과 옷을 자는 밤에 빨아서 주군하여 우선 몸차림부터 단정히 하게 하였다.

정화는 《누가 빨래 해 달라고 했나.》하고 도리여 짜증을 내군 했다. 그러나 여실이는 그를 노엽게 여기지 않았다. 여실이는 뚜껑이 너덜너덜 달아 떨어진 그의 책을 그가 자는 짬에 새 것처럼 말들어 놓기도 하였다.

여실이는 도서실에서 《만경대》, 《아동단》,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등 재미있는 책을 빌려다 보면서 정화에게 이야기해 주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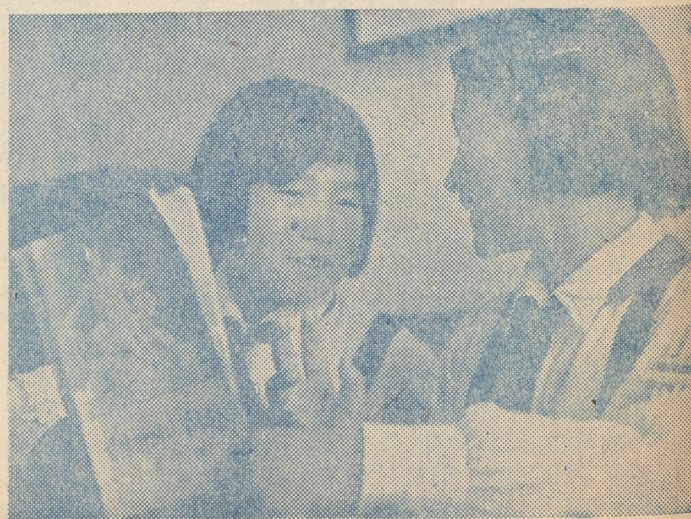
정화는 차차 이런 책 읽기에 취미를 부치였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싸움도 덜하였다.

여실이는 곧 분단 벽보 주필과 의논하여 《20일이 가도 싸움을 모르는 정화동무》라는 제목으로 벽보를 써 부치고 거기에다 그가 도서실에 책을 빌리려 가는 그림까지 멋지게 그려 부쳤다.

이날 방과 후 정화가 슬그머니 도서실로 가는 것을 본 여실이는 기뻤다.

얼마 후 정화가 몹시 앓게 되였다. 이때 분단 동무들 모두가 정화를 따뜻이 구환했다. 동무들은 서로 미음을 타다 주었고 과자며 실과도 타다 주었다. 여실이는 정화 곁에서 밤을 새웠다. 정화는 동무들의 지극한 간호로 곧 나았다.

그후 정화의 생활에서는 차츰 달라지는 기색이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분단에서 누가 앓으면 남 먼저 달려 가 밥을 날라다 주고 약을 타 오군하였다. 마침내 정화는 동무들의 다정한 동무로 변하였다.

여실이는 이렇게 분단 동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무들의 일도 손이 닫는 데까지 도와 준다. 몰래 빨래를 해다 주고 방도 깨끗이 치워 준다. 고중 반 오빠들, 기술 반 오빠들 다른 분단 동무들, 그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직 열 세살 밖에 안 되는 여실이와 그의 동무들이 기술 반 오빠의 내의를 40 여 가지나 빨아다 주었으니 어찌 안 그러겠는가! 이런 칭찬은 여실이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 학원에서 《기특한 꼬마들》 이라고 하면 10 분단 동무들을 가르켜 하는 말이다.

여실이(오른편)와 그의 동무들

☆ 46통의 편지

저녁 점검을 끝내고 모인 1 분단 위원들은 한참이나 묵묵히 앉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광덕이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우리의 잘 못부터 찾아야겠어.》 단 위원장인 김 정우가 침묵을 깨뜨렸다.

김 광덕이가 오늘 없어진 것이다.

얼마 전에도 말 없이 고모네 집으로 달아난 것을 분단 위원인 박 기철이와 차 상건이가 가서 데려 왔는 데 오늘 또 없어진 것이다.

동무들은 《설마 이번에야 또 갔을가, 어디 나가 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소지품 일절도 조사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날은 벌써 저물었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는 규률 있는 사람이 더 요구된다. 동무들은 어려서 부터 규률있고 자각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을 해야한다.…

학원에 오셨을 때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니 분단 위원들은 집단을 떠난 동무를 두고 그대로 잘 수가 없었다. 위원들은 모두 지난 번에 데려 왔을 때 따뜻하게 도와 주지 못한 잘못을 뉘우쳐서인지 더 말을 못하고 있었다.

《광덕이를 내가 데려 오겠어.》 이윽고 분단 위원장 박 기철 동무가 벌떡 일어섰다.

《아니야 넌 지난 번에도 갔었지, 이번엔 내가 가겠어》 동무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나섰다. 이리하여 김 정우와 원 이선이 어두운 밤'길을 떠났다.

온천군 보림리 김 광덕이의 고모네 집까지는 45 리는 실이 되는 길이다. 어려서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모두 학살 당한 광덕이는 여지껏 고모와 함께 살다가 학원에 왔다. 그는 학원에 온 날부터 어머니나 다름 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던 고모 생각만 하고 규률 생활을 싫어 했다.

늦 잠을 자다 나니 아침 조기 체조에는 늘 빠졌다. 아침 밥을 다 해 놓고 고모가 깨워서야 겨우 일어 나던 광덕이였다. 정우와 이선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10 리쯤 걸었을 때 갑자기 온 하늘에 먹장 구름이 떠 돌더니 우뢰가 울고 번개가 쳤다. 《도루 가야겠구나.》 더럭 겁이 난 이선이가 정우를 보며 말했다.

《그냥 돌아 가서 분단 동무들 앞에 나설 면목이 있니? 난 그럴 수 없어,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혁명 동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았다지 않아.》 정우의 힘 있는 말에 이선이는 말 없이 따랐다.

《정말 그래, 동무들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난 아직 광덕이 같았을거야.》

애육원에서부터 어린 마음을 자래운 이선이는 몇 번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원장 선생님의 품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군 했는지 모른다.

소낙비가 사정 없이 퍼붓는 캄캄한 밤에 진탕길에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며 두 동무가 광덕이네 집 마당에 들어 서니 훤히 새 날이 밝았다. 비에 흠빡 젖고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여 들어 선 두 동무를 본 광덕이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얘야, 동무들 보기 부끄럽지 않니? 너는 원쑤놈들에게 학살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처럼 고맙게 보살펴 주는 은덕도 모르냐?》

고모의 이 말씀에 광덕이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날 정우와 이선이는 광덕이와 함께 사랑의 집—학원으로 돌아 왔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들 뛰여 나와 광덕이를 반가히 맞았다.

그후 광덕이는 그저 말 없이 분단 동무들의 도움을 받다가 방학이 되여 고모네 집으로 갔다. 고향으로 가는 동무들은 저마다 광덕이에게 《잘 갔다 와》, 《우린 서로 앓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자.》하면서 손을 흔들어 줬다. 고향으로 간 광덕이는 며칠 후 이선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광덕아, 공부를 잘하여 최우등을 해야 된다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길이다. 너는 어쩨선지 항상 우울한 얼굴이더구나. 이 번에는 학원에서 우리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자. 그래서 돌아 오는 2.8 절 날에는 우리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자…》 정다운 동무의 편지를 읽는 광덕이는 눈'시울이 뜨거워 났다. 다음 날에도 평양, 사리원, 함흥에서 온 수 많은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날마다 꼬리를 물고 날아 왔다. 이것은 모두 고향에 돌아 간 분단 동무들의 뜨거운 마음이였다.

광덕이는 날마다 고모에게 분단 동무들한데서 받은 편지를 읽어 드리며 막 좋아 뛰였다. 이리하여 광덕이는 분단 동무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46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동무들을 두고 내가 달아 오다니) 그는 지난 날이 부끄러웠다.

(이 번에 돌아 가면 행동으로 기어히 보여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광덕이는 고모와 함께 즐거운 보름 동안의 나날을 보내고 학원에 돌아 왔다. 그러니 그 후의 광덕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겠는가를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그가 분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한다는 것만 알아 두자. 그가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 부문을 맡고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오이씨를 고모네 집에 편지를 띄워 소포로 붙쳐 오게 한 일, 밤마다 학원 기숙사를 돌아 보고 동무들이 틀어 놓은 100 여 개의 수도 꼭지를 막아 물을 랑비하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제 이런 일은 그에게 있는 보통 일로 되였다.

광덕이는 이렇게 집단의 뜨거운 사랑으로 분단의 주인—학원의 주인으로 되였다.

× × ×

우리가 쓰는 글은 이것으로 끝내려한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걸음마다 꽃피워 나가는 그 많은 가지 가지의 사연을 여기에 어찌 다 담을 수 있겠는가!

오늘도 사랑의 집—행복의 집, 800 여 명 원아들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원수님의 말씀은 붉게 붉게 꽃으로 피어 나고 있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4)

글 박 응호
그림 최 순천

(28) 이를 모르고 걸어 오던 문섭이는 그저 빨리 돌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이때였다.

두 놈의 왜놈이 총창을 번쩍이며 달려 나왔다.

문섭이는 그만 눈 앞이 아찔해졌다.

(29)문섭이는 정신 없이 내뛰였다. 놈들이 다급히 뒤 쫓아 왔다.

선발대로 들어 온 놈들은 총은 쏘지 못했다. 문섭이를 생포하려 한 것이다.

(30) 문섭이를 찾아 떠난 춘삼이를 비롯한 아동 단원들이 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것만 같았다. 문섭이는 놈들에게 붙잡힐게 뻔한 일이였다.

춘삼이가 급히 아이들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31) 한 아동 단원이 급히 적《토벌대》가 쳐 들어 왔다는 긴급 신호를 하였고 한편 춘삼이를 비롯한 아동 단원들은 라팔을 불며 함성을 올리며 놈들을 향해 돌 벼락을 안겼다.

(32) 유격대에게 포위된 줄로만 안 왜놈들은 기급을 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어떤 놈들은 맹렬한 돌 사격에 맞아 곤두박치기도 하였다.

(33) 긴급 정보를 받은 유격대들이 출동하였다. 유격대원 아저씨 들은 적《토벌대》를 앞질러 놈들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3 4) 열혼이 나갔던 문섭이는 춘삼이를 비롯한 아동 단원들이 달려 왔을 때에야 제 정신에 돌아 섰다. 적을 피해 뛰면서도 노루는 끝끝내 메고 뛰였다.

(35) 그날 저녁이였다. 춘삼이의 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왜놈 《토벌대》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춘삼이는 문섭이의 두 번째 과오를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춘삼이는 몇 시간을 두고 문섭이와 마주 앉아 그의 과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6)문섭이는 저녁 먹을 생각도 없었다. 그는 외따른 수림 속에 홀로 앉아 이날에 저질은 자기의 과오를 뼈 아프게 뉘우치는 것이였다.

글 최죽산　　　　그림 최순천

여기에 네 오누이의 사진이 있다. 이들이 어떤 동무들이며 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음의 편지에서 알아 보기로 하자!

그리운 형님께!

형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형님에게 편지를 보낸지 며칠 되지 않았으나 오늘의 기쁨을 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어 또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우리 학원에 김 일성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지 한 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이날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미 있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10 분단의 축구 선수로 뽑혔댔습니다. 분단들을 위하여 있는 힘과 재간을 다하여 공을 찼습니다.

그러나 형님 그 보다 더 기쁜 일은 내가 그린 그림이 학원 동무들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분단 동무들은 상품을 받은 나를 축하하여 꽃다발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저 가슴이 뭉클해지며 목이 꽉 메여지는 것이였습니다.

고급반에서 공부하는 명자 누나도 써클에서 노래를 잘하여 동무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에는 누나도 오늘의 기쁨을 형님에게 편지로 쓸 것입니다.

형님! 오늘의 이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명수 누나가 계시여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로 이가 갈립니다.

형님! 그때 나는 겨우 두살이였으니까 그때의 일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여덟 식구 중에서 어떻게 우리 네 오누이가 살아 남게 되엿는 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두살이고 형님이 열살 때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형님들과 누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대로 눈 감고 곰곰히 그 광경을 그려보면 막 치가 떨립니다. 《빨갱이》라고 미국놈들에게 끌려 가 아버지가 학살 당한 며칠 후 승냥이놈들은 우리 집에 달려 들었다지요. 놈들은 우리 집 식구는 물론 죄 없는 인민들을 화약 창고에 가두어 놓고는 《온 식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화약 창고에 데려 왔다.》고 하였다지요.

그러나 그때 형님과 둘째 형님인 경수 형님은 《용수야, 저놈들이 우릴 몰살 할 모양이다. 넌 경수를 데리고 도망쳐라, 안개가 깊으니 가다가 울타리에라도 착 붙었다가… 꼭 살아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라!》 어머니가 귀'전에 대고 일러 주는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쳤다고 하였지요. 나의 그 후의 일은 형님들은 모르고 누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업은 명수 누나와 갓난 아기를 업은 어머니는 명자 누나의 손목까지 잡고 안개 속을 허우적이듯 엎어지며 끌려 간 곳이 형님도 잘 아는 원암리 밤 나무'골에 있는 화약 창고였지요.

형님도 누나에게서 들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화약 창고에서의 일 주일이란 얼마나 몸서리 치고 이가 갈리는 일입니까! 그 미국 승냥이 놈들은 이제 겨우 엄마라고 부르는 젖먹이 아이들에게 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물 한 방울, 밥 한 알 주지 않고 꼬치꼬치 굶겨 죽이자고 하였겠습니까.

한 목숨의 물도 주지 않고있던 미국 승냥이놈들은 마지막 날에는 휘발유를 아이들에게 물이라고 주고는 그것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머리 우에 휘발유를 물치듯 치고는 불을 지펴 놓고 수류탄까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이것이 두 발 가진 승냥이가 아니고서야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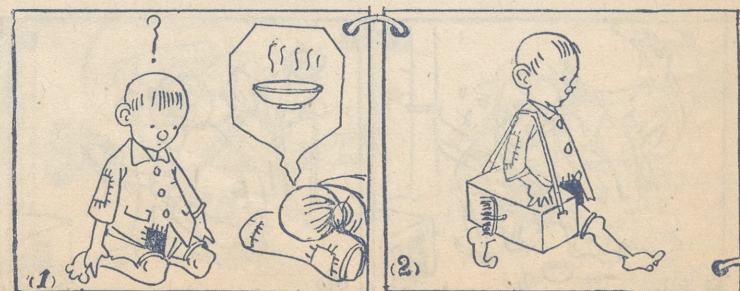
만약 누나가 공기 통으로 낸 창문으로 나와 창고 문을 열지 아니 하였더라면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명수 누나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화약 창고에서 잃은 우리는 그후 서로 헤여져 알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1959년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온 누나 만나려 만경대 학원에서 공부하시던 형님이 우리 학원으로 찾아 왔을 때 10년 가까이 서로 알 길이 없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제가 오붓이 모여 앉던 일이 어제 일 같습니다.

형님은 누나의 말을 듣고 죽었던 내가 살아 났다고 하니 얼른 고지 듣지 않았지요. 누나가 창고에서 기여 나오다 쓰러진 나를 보고 죽은 줄만 알고 창고 곁에 가져다가 벼'짚을 덮어 놓고 떠났다고 이야기 할 때 형님은 내 오른 쪽 두 손가락이 얼어 빠져 없어 진 것을 어루만지며 막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나도 나도 모두 울었지요. 그러나 형님은 두 주먹을 힘 있게 부르쥐며 《우리는 꼭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 때의 형님의 모습과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이 학원으로 돌아 가신 그날 저녁 누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고마운 어버이 품이 어디 있니, 광수야 공부 잘하여 우린 꼭 원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라고 하며 누나는 나를 꼭 끌어 안고 다짐 받듯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공부를 잘 하고 일 잘하는 모범 소년단원이 될

그림 허 능택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우리들에게는 또 기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작년 9월 영영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형님(경수)이 루마니야에 가 공부하다가 조국으로 돌아 왔다는 꿈 같은 소식이였지요. 그때 나와 누나는 그날 밤으로 평양으로 올라 갔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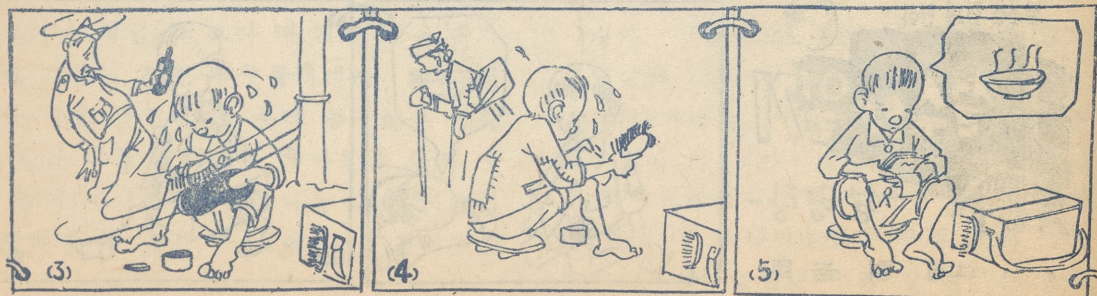
형님 그 때의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다 이 편지에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네 오누이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수 누나까지 그 죽엄의 화약 창고에서 살아 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형님! 나는 행복할수록 옛날을 잊지 말라는 형님들의 편지마다의 부탁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 학원에 오셔서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 그리고 친척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오늘 나는 형님에게 마음의 그대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때까지 형님에게 올리는 편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의 잘못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학원에 와서 반 년은 늘상 분단 동무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아침 기상 종이 울려도 일어 나기 싫어하고 아침 체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중에 잉크를 가지고 옆의 동무들과 작란질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질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 왔는가를 잊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단 동무들의 도움으로 잘못을 고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학기에는 국어 과목에 4점을 맞고는 모두가 5점이였습니다.

지금도 형님의 이런 편지가 생각됩니다.

《…광수야 너는 꼭 네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났는 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운 일에서든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을 생각하고 슬기로운 아동 단원들처럼 원쑤를 미워하는 정신을 키워 아버지 어머니를 학살한 미국놈들을 쳐부셔야 한다…》

김책(고등 금속 전문 학교)에 있는 둘째 형님도 함께 있는 명자 누나도 항상 나를 형님처럼 이렇게 일러 줍니다. 며칠전 둘째 형님의 편지에는 지난 중간 시험에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였다고 기쁜 소식을 보내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만경대 학원에서 공부하는 맏 형님과 명자 누나도 항상 최우등이며 나도 지난 학기에는 우등이였지만 이제는 4 점 짜리 국어 과목을 추켜 세워 최우등이 자신 있다고 회답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공부를 잘하고 소년단 사업에 모범이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원쑤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 오늘 나는 식당의 식탁과 걸상을 내가 늘상 주어 모아 온 못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못 박는 데 몹씨 애를 썼답니다. 그것은 두 손가락이 없어 장도리를 꽉 쥘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식탁을 다 고쳐 놓은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 운동장에 나와 땅 우에 미국 승냥이놈의 대가리를 그려 놓고 장도리로 몇 십번이나 내려 쳤는지 모릅니다.

형님 그러니 정말 미국 승냥이놈들은 우리 네 오누이의 원쑤일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간악한 원쑤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학살한 미국 승냥이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마을과 도시들을 싸다니며 나와 같은 어린 것이 미국놈의 구두'발에 짓밟혀 죽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복할 때마다 우리가 남조선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형제가 남조선에 있었다면 우리는 천대 받고 굶주리며 헤메다 어느 다리 밑이 아니면 길'가에서 굶어 죽었거나 미국놈의 자동차에 치워 죽은지도 오랬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에 노예로 팔려 가 죽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온 몸은 소름이 끼칩니다.

형님! 그러나 우리 네 오누이는 얼마나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행복은 우리 오누이만이 받는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유자녀들과 고아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속이 아니고서야 어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형님! 우리들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원수님의 품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안고 공부를 더 잘하고 소년단 사업에 모범이 되여 꼭 원수님의 나 어린 붉은 전사가 되겠습니다.

형님! 오늘은 이만 쓰렵니다. 형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961년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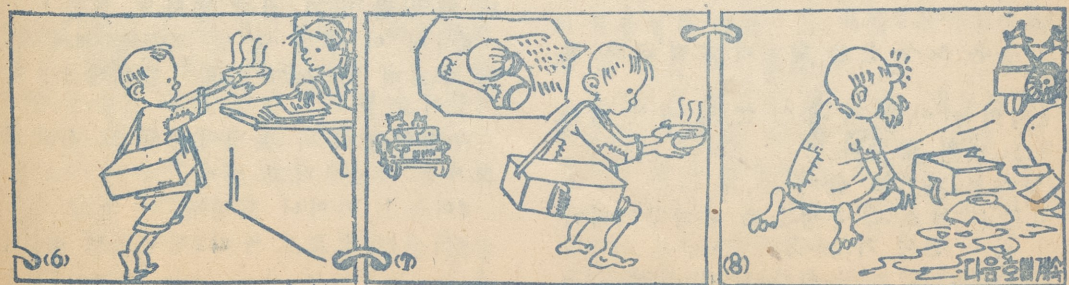
남포 유자녀 학원 인민반 4학년

동생 광수 올림

소설

가장 귀중한 것

글 강효순

그림 양 재혁

(1)

1934년 1월 어느 날이였다.

아동 단원인 우식이는 김 선생으로부터 중요한 련락 임무를 받아 가지고 길천령을 넘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눈 바람은 가끔 우식이의 가는 길을 막았으며 세차게 불어 오는 찬 바람은 숨을 칵칵 막군했다.

그럴 때마다 우식이는 더 크게 발 걸음을 내 딛어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갔다. 오히려 오늘처럼 눈보라 휘몰아 차는 날에 조직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는 것이 더욱 보람 있을 것만 같았다.

우식이는 벌써 보초막을 세 곳이나 무사히 통과했다. 놈들은 우식의 몸을 샅샅이 뒤져 보았으나 그가 깊이 간직한 비밀 쪽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기는 날세가 이렇게 춥지 않았다면 혈안이 된 놈들은 더욱 기승스럽게 달려 들어 뒤졌을 것이였다.

《바람아! 마지막 보초 막을 지날 때에는 더 춥고 세차게 불어다오.》

우식이는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령마루 밑으로 내려 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보초 막 앞을 태연스럽게 걷고 있을 때였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하고 보초놈이 칼 꽂은 총을 우식이 앞으로 쑥 내 미는 것이였다. 눈 알이 톡 불어졌고 눈'섭이 서로 맞 붙은 놈이였다. 키는 난쟁이 같은데 몸'집은 통통해서 마치 단 지팽이와 같았다. 보기만 해도 얄밉고 악착스럽게 생긴 놈이였다.

《우리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우식은 시침을 따고 이렇게 대답했다.

《지고 가는 것 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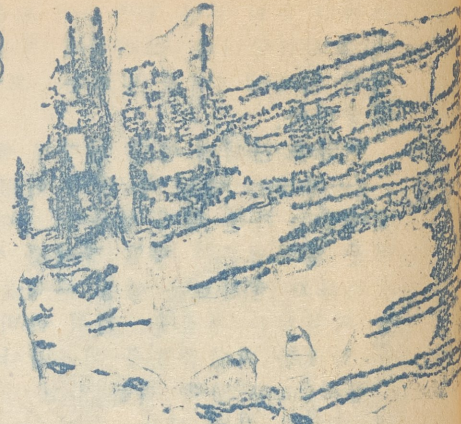
《감자 올시다.》

《내려 놓아.》

그 놈은 노상 눈을 굴리며 호령'조로 말했다.

우식이는 아무 말 없이 눈 길 우에 감자 자루를 내려 놓았다.

《이리로 가지고 들어 와.》

그 놈은 보초 막 부엌으로 바기작거리며 앞장 서서 들어 가는 것이였다.

부엌에는 또 한 놈이 아궁에 장작을 지피다가 허리를 펴며 우식이를 흘깃 바라 보는 것이였다. 그 놈은 키가 크고 광대뼈가 쑥 나왔는데 눈이 왕방울 같았다.

(한 놈은 땅딸보, 한놈은 꺽다리로구나) 우식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감자 넣은 자루를 부엌 바닥에 놓았다.

《쏟아!》

땅딸보놈이 우식이를 아래 우로 훑어 보며 호령했다.

우식이는 감자를 부엌 바닥에 와르르 쏟아 놓았다. 꺽다리 놈은 감자를 한개 한개 옮겨 놓으며 뚫어지게 드려다 보는 것이였다. 그리고 딸딸보놈은 우식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놈은 우식의 털 모자를 벗겨 이모 저모로 한 동안 드려다 보더니 실'밥을 뜯기 시작 했다.

《아니 이 추운 날 털 모자를 그렇게 뜯어 놓으면 뭘 쓰고 가란 말이야요. 이리 주어요.》

우식이는 부러 울먹이면서 그 놈에게서 모자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놈! 가마니 있어라.》

《어서 주서요. 우리 형님한테 욕 먹어요.》

《너 이놈 무슨 비밀 쪽지를 가지고 가지?》

《아닙니다. 정말 외 삼촌네 집에 갑니다.》

《거짓 말 말아라. 다 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거들랑 나하구 같이 가 봅시다 그려.》

《이 자식 봐라. 그래 경비하다 말구 네놈의 뒤를 따라 다니란 말이야》 하며 땅딸보놈은 야무진 주먹으로 우식의 턱을 힘껏 쥐여 박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비칠거리며 한 손으로 턱을 감쌌다.

《옷 벗어라!》

땅딸보 놈은 우식의 두루마기 자락을 나꾸어 채는 것이였다. 이 바람에 우식의 두루마기 고름이 뚝 떨어졌다. 우식이는 그 놈의 상통을 갈겨 대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 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있는 원쑤놈들의 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였다. 우식이는 아무 말 없이 두루마기를 벗어 주었다.

땅딸보 놈은 두루마기 동정과 깃을 북북 뜯더니 찬찬히 살펴 보는 것이였다.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놈은 이번에는 여기 저기 실'밥을 뜯어 보는 것이였다.

《아니 그렇게 뜯으면 어떻게 가란 말이예요.》

우식이는 막 울'상이 되여 그놈 앞으로 다구어 섰다.

《가마니 있어라 이놈! 아무래도 네 놈은 수상하다.》

그 놈은 두 눈을 부릅 뜨고 우식이를 한번 흘겨 보더니 두루마기 고름의 실'밥까지 뜯는 것이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아무 것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땅딸보 놈은 이런 식으로 저고리까지 뒤져 보았다. 그러나 저고리에서도 아무 것도 찾아 낼 수 없었다.

《보서요, 글쎄 제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서 가게 해 주서요》

우식이는 이렇게 사정도 해 보았다. 그러나 그 놈은 우식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바지 벗어라!》

우식이는 점점 가슴이 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물쭈물 할 수는 없었다. 우식이는 부러 싱긋 웃으며 그자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아니 왜 그러서요 사람을 얼어 죽일 작정이십니까? 자! 보실테면 보서요.》

우식이는 그 놈의 앞으로 엉둥이를 둘러 대고 바지를 홀랑 벗으려고 했다.

《에 이놈, 속 잠뱅이두 안 입었구나.》하며 땅딸보 놈은 우식의 엉둥이를 철석 갈기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벗으려던 바지를 훌쩍 올리고 말았다.

《공연히 엉둥이만 한개 맞았네.》 하며 우식이는 그 놈의 앞에서 슬슬 피하며 뒤'걸음질을 쳤다. 이 때에 우식의 옳은편 짚 신이 벗어졌다.

우식이가 벗어진 짚 신을 신으려고 할 때였다. 감자를 다 조사하고 돌아 서던 꺽다리 놈이 우식의 짚 신을 넝큼 집어 들더니 신 총과 신 날을 빠개 가며 찬찬히 드려다 보는 것이였다.

그런데 땅딸보 놈은 우식의 바지까지 훌

랑 벗껴 볼 생각은 없었던지 몇군데 바지를 만져 보고 허리를 펴는 것이였다.

땅딸보는 우식이를 한번 더 아래 우로 훑어 보더니 호주머니에서 담배 갑을 꺼내는 것이였다. 그자는 담배를 꺼내며 흘끗 꺽다리를 돌아 보더니 담배를 다시 호주머니에 닁큼 넣는 것이였다.

《저 신도 벗어라!》하며 우식이를 바라보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눈 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뼁뼁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가?) 우식이는 가슴이 막 조여드는 것 같았다. 이 순간 우식의 머리에는 (조직의 비밀은 생명보다 귀중하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신 김 선생의 모습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렇다 짚신 짬에 숨긴 비밀 쪽지를 놈들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

우식이는 이 이상 더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입술을 힘껏 다구어 물고 두 주먹을 힘껏 쥐였다.

우식이는 장승처럼 자기 앞에 뻗쳐 서고 있는 원쑤놈을 냅다 밀뜨리고 장작 불이 이글이글 피여 오르는 아궁 앞으로 달려갔다. 어느 듯 우식이는 아궁 앞에 쓰러지면서 왼 발을 아궁으로 쑥 밀어 넣었다.

이 순간 우식이는 전신이 불'길 속에 휩싸여 솜'뎅이처럼 활활 타 오르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 앞에는 원쑤놈들이 자기의 집과 부락을 불사르던 악착스러운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불 속을 뚫고 뛰쳐 나와 원쑤 놈들에게 저주의 함성을 올리던 모습, 그리고 빨찌산 대원들이 놈들의 경찰 지서를 소탕하고 지서를 불 바다로 만든 모습들이 불'길에 한테 뒤섞이여 꿈'결처럼 지나가는 것이였다. 우식이는 무서운 것도 뜨거운 것도 깨닫지 못했다.

(김 선생님! 원쑤놈들에게 짓밟힌 아름다운 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작은 이 몸을 바칩니다.)

우식이는 입 속으로 이렇게 중얼 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느 듯 미소가 흘렀다.

우식이가 비호처럼 달려 가 아궁으로 발을 밀어 넣자 꺽다리 땅딸보놈은 와락 달려 들어 그를 끌어 당기려고 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하여 아궁'돌을 두 손으로 글어 쥐고 있는 우식이를 쉽사리 끌어 당길 수는 없었다. 우식의 신과 솜바지는 불'길에 활활 타 올랐다. 육중한 두 놈은 한참만에야 우식의 팔과 허리를 부여'잡아 아궁에서 끌어 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조직의 비밀이 적혀 있는 작은 쪽지는 짚 신과 함께 불에 깨끗이 탄 뒤였다.

우식이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솜 옷은 연기를 피우며 계속 타 오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솜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나 우식이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꺽다리 놈은 갈구리로 짚 신을 아궁에서 꺼냈다. 그자는 발'길로 짚 신의 불을 껐다. 그러나 부엌 바닥에 남은 것은 검은 재 뿐이였다. 놈들은 《닭 쫓아 가던 개》처럼 물끄럼이 서서 재만 드려다 보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학원의 참된 주인

—영예로운 《모범 분단》인 량강도 신파 초등 학원 단 제 4 분단 홍 명풍 동무에 대한 이야기—

글 리 광수　　　그림 리 덕상

△ 행복의 집

작년 10월이였다.

여름에 내준 교복과 내의가 아직도 새 것 같은데 학원에서는 겨울에 입을 새 교복을 내 주었다.

곤색 캬바징으로 만든 교복, 새까만 색의 두툼한 외투, 빨간 색 겨울 내의까지 타 입은 홍 명풍 동무는 너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거울 속에 새 옷을 입은 자기의 모습을 몇 번이고 비춰 본 명풍이의 가슴은 자꾸만 부풀어 올랐다.

이날 밤 포근한 꽃 이불 속에 누운 명풍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원쑤놈들의 폭격에 집은 불타고 사랑하는 부모 동생들을 잃었지만 자기가 고아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았다.

철을 따라 새 옷과 내의 그리고 학용품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주며 생일 날과 명절에는 맛나는 음식을 가득 차려 놓고 모두가 친 형제들 처럼 모여 앉아 축하하는 학원! 이 보다 더 행복한 집이 또 어데 있으며 이처럼 다정한 형제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명풍이는 이처럼 끝 없는 행복을 안겨 주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행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언제나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과 당이 부르는 길을 따라 참된 소년단원답게 자기의 모든 힘을 바쳐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이 될 것을 굳게 결심 다졌다.

△ 이른 새벽마다

명풍이의 어린 가슴에 굳게 다져진 결심은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자나 깨나 행복의 학원을 어떻게하면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군 하였다.

어느 날 청소 당번 때였다. 책상

걸상을 한쪽으로 나르던 명풍이는 다리가 거진 빠지는 걸상을 발견하였다.

《이 걸상은 우리들을 공부 잘 하라고 나라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함부로 막 다루어 저렇게 다리가 빠지게 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명풍이는 청소를 끝내고 마치와 못을 얻어다가 늦게까지 걸상을 고쳐 놓고도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교실에 놓인 책상, 걸상을 모조리 검사해 보았다.

만든지 몇 해 된 책상, 걸상 중에는 더러 삐죽거리는 것이 있었다. 명풍이는 자기 손으로 이것을 짬짬이 고치기로 결심을 품었다.

그러자면 못이 필요하였다. 명풍이는 이날부터 못 줏기에 나섰다. 길을 걸을 때, 학원 주변에서 그리고 가는 곳 마다에서 크고 작은 못을 한 개 두 개씩 모았다. 종이에 꽁꽁 싸서 책 가방에 넣었다가 남 몰래 새벽마다 교실에 나가 책상, 걸상을 고치는 것이다.

명풍이가 이런 일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온 종일 못을 주었는데 8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명풍이에게 못이 있는 줄을 안 《못치기 선수》 성수가 따라 다니면서 졸라댔다.

《명풍아 그 못을 좀 꿔달라 응! 내 못치기 해서 많이 따 줄게…》

《그건 별 사람이 달라구 해두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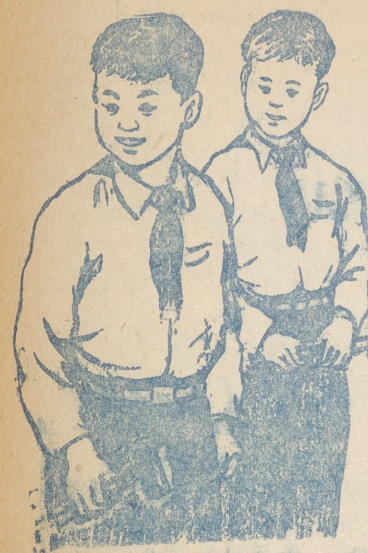
《그 잘난 못을 가지고… 너무나 빼긴다 야…》

성수는 빌다 못해 성을 냈다. 그러나 명풍이는 끝내 주지 않았다.

(성수에게 이 못을 어데다 쓰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어야겠다…) 고 마음 먹은 명풍이는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성수를 찾아 갔다.

《성수야 노여워 말어, 래일 못치기 하게 못을 줄게…》

명풍이는 좋아 하는 성수를 데리고 생활실에 돌아 왔다. 그는 성수와 함께 그림 이야기 책도 보고, 숙제도 하였다. 그리고 영화 《붉은 꽃봉오리》에 나온 주인공 윤해와 만옥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깨여난 명풍이는 성수를 데리고 교실에 나갔다. 그는 삐죽거리는 책상과 걸상을 골라 가면서 든든하게 못을

박기 시작하였다. 성수도 아무 말 없이 못을 박는 명풍이를 도와 책상과 걸상을 붙잡아 주었다.

이날 아침 성수는 명풍이의 아름다운 행동에 몹씨 감탄하였다. 수업이 끝나자 성수는 이미 못치기에서 얻은 45개의 못을 명풍이에게 내놓았다.

《명풍아 이걸루 우리 책상, 걸상을 모두 고치자…》

명풍이는 성수의 행동에 몹씨 기뻤다.

이리하여 다음 날 새벽부터는 두 동무가 계속 책상, 걸상을 든든하게 고치기 시작하였다.

명풍이는 놀음에 정신을 팔고 있는 희준이와 영기의 나쁜 버릇도 이렇게 자기의 실지 모범을 통하여 고쳐 주었다.

분단에는 《못치기 선수》들이 없어졌고 네 동무가 새벽마다 책상, 걸상을 고치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였다.

어느 날 분단 위원장 송 병실 동무가 새벽에 깨여나 밖에 나가니 교실에서는 마치 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참 이상한데… 누구들일가…》

병실이는 홍표를 데리고 살금살금 교실에 들어갔다. 교실 문을 연 병실이와 홍표는 놀랐다.

지금 교실에서는 명풍이와 성수가 청소 도구를 넣는 롱을 만들고 있고, 희준이와 영기는 책상에 못을 박고 있었다.

누구도 모르던 비밀은 발각되였다. 이리하여 벽보와 분단 총회를 통하여 이들의 모범은 널리 알려졌다.

명풍이가 지핀 한 점의 불꽃은 전체 동무들의 가슴 마다에 불꽃을 피웠다. 날이 갈수록 동무들 속에서는 학원의 책상, 걸상과 비품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마음들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아십니까?

토끼 털을 어떻게 깎을가요

보통 새끼 털 토끼는 2~3개월이 지나면 털을 깎을 수 있다. 털 토끼 한 마리는 1년에 4~5회의 털을 깎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때는 털 길이가 5~6cm 정도 때이다. 마약 이때 깎지 않고 그냥 두어 둔다면 털은 더 자라지 않고 저절로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깎아 주어야 한다.

털 깎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가위로 깎는 방법과 손으로 조금씩 뽑는(털이 일정하게 자라면 뽑아도 아파하지 않는다) 방법이다.

가위로 털을 깎을 때에는 먼저 빗으로 털을 잘 빗고 다음에 날이 엷은 가위로 깎아야 한다. 이때 조심할 것은 토끼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가위'밥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끼 밴 어미 토끼의 털을 깎을 때에는 가슴과 배의 털을 깎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제 털을 뽑아 보금자리를 하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털은 남겨 두어야 한다. 새끼 배지 않은 토끼들의 배 털을 깎을 때에는 젖 꼭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겨울에는 털을 모조리 깎지 말고 긴 털만 골라 손으로 뽑고 짧은 털은 남겨 두었다가 자란 후에 깎는 것이 좋다.

깎은 털은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책을 읽자!

《어린 혁명 전사들》(1)

이번에 민청 출판사에서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배우며 자란 소년 유격대원들과 아동 단원들의 슬기로운 투쟁 모습을 담은 책 《어린 혁명 전사들》(1)이 나왔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항일 빨찌산 투쟁의 어려운 투쟁 시기에 직접 아동단을 조직하시고 지도하셨으며 혁명의 꽃봉오리인 어린 투사들을 믿음직한 혁명 전사로 키워 주시였습니다.

이 책에는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우리의 슬기로운 어린 혁명 투사들이 혁명의 불'길 속에서, 빨찌산 대오에서, 유격 근거지 내에서, 적 통치 구역 내에서, 원쑤들의 감옥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 《소년 유격대원들》, 《불무지 보초》, 《첫 행군의 날에》 등 회상기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크나 큰 품안에 안기여 어버이와 같은 사랑과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강철의 혁명 전사로 자라나는 소년 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하나하나의 가르침은 소년 유격대원들의 붉은 뜻을 더 크게 키워 주었으며 원수님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거울로 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의 부모를 원쑤들에게 잃은 혁명 투사들의 나 어린 유자녀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님의 그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랑의 품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원쑤를 미워하는 불타는 마음을 키웠으며 어떠한 어려운 일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굳센 투지를 키워 나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혁명의 대렬에 들어 섰다》, 《길은 하나이다》 등에는 나 어린 아동 단원들이 갖은 어려움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혁명 대오를 찾아 가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20일 간의 간고한 나날을 거쳐 김 일성 원수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빨찌산 대오를 찾아 갔습니다. 한 알의 식량도 못 가지고 적들의 거듭되는 추격을 받으면서 눈 덮인 험한 산'길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걸어도 가고 기여서도 갔습니다. 길 수도 없을 때는 굴러 내렸습니다.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혁명의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자… 기여서라도 끝까지 가자…》는 투지로 그들은 끝내 내두산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불무지 보초》에서

《리 화순 동무의 최후》, 《빨찌산의 딸》에는 유격 근거지 내의 아동 단원들의 생활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유격대 아저씨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강철 같은 규률 생활을 통하여 씩씩하게 자라났으며 유격대와 인민을 돕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앞장 서 나갔습니다. 불행히도 놈들에게 체포되는 경우에도 그들은 원쑤들의 온갖 야만적인 고문을 참고 견디여 끝끝내 조직의 비밀을 지켜 내고야 말았습니다.

《붉은 꽃》, 《혁명의 꽃봉오리들》, 《어린 혁명가들》,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 등에는 모두가 적 통치구역 내에서의 아동단원들의 피 어린 투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통신 련락, 적정 정찰, 벽보 공작, 삐라 살포, 보초 근무 등 이 모든 어려운 과업을 그들은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도 그들은 굴함 없이 대담하고, 민첩하게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해결하여 나갔습니다. 잘 싸우면 반드시 김 일성 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하나의 희망을 품고 그들은 《김 일성 장군을 만나기 위해 잘 싸우자!》—이것은 당시 아동 단원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써 지키였습니다. 심 금룡, 문 길, 황 정해, 광 춘 동무들은 갖은 고문을 끝끝내 이겨 냈습니다. 광춘 동무는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혀를 깨물어 끊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욱 귀중히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환 동무는 수류탄을 터뜨려 일곱 놈의 경관과 경찰서를 몽땅 날려 버리고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조국 광복을 위하여 바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공산주의의 승리를 믿고 그를 위해 싸운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혁명 전사들의 애국심, 당과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 동무에 대한 사랑, 조직에 대한 충실성 등 아름다운 정신을 본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책을 빠짐 없이 읽으며 자기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그대로 모범 받아 그들처럼 배우며 생활하기에 힘씁시다.

이것을 아십니까?

《말》하는 물'고기

동무들은 바다 속은 고요하고 아무런 소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를 속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끊임 없이 나고 있다. 그 중에는 물'고기들이 내는 소리도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럼 물'고기들이 어떤 소리를 낼가요?

우리는 물'고기들이 내는 소리를 물'고기의《말》이라고 한다.

물'고기들은 소리도 낼 뿐만 아니라 옆으로 뻗은 측선(감각 기관) 등으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례를 들면 청어는 새 새끼의 울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멸치는 바람에 나무 가지가 흔들려 《부스럭》 거리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고, 정어리는 한 밤중에 파도가 바위에 부디쳐 부서지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낸다.

물'고기들이 내는 이런 소리는 보통 물'고기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무엇을 먹을 때, 알을 낳을 때 등에 내게 된다.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내는 이 소리를 고기 잡이에 리용하고 있다. 그것은 배에 물'고기 소리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수중 청음기》라는 기계를 설치하고 물'고기들의 《말》을 기록하여 고기들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까지 알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고기를 손 쉽게 찾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첫 우주비행은 이루어졌다

—김책 공업 대학 물리 강좌—

리 용 호

그림 김 덕 상

지구 우에서는 한가지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가요? 동무들도 다 들었겠지만 지난 4월 12일 쏘련에서 온 세계 사람들을 온통 기쁨으로 들끓게한 사람을 태운 위성—비행선 《워쓰또크 (동방)》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 왔다는 소식입니다.

커다란 로케트가 위성—비행선 《워쓰또크》를 싣고 푸른 하늘 속으로 아주 굉장한 속도로 떠 올랐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떠 오르자 마자 복잡한 자동 장치와 무전 운전 장치가 이것을 믿음직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으며 위성—비행선은 어떻게 될가요?

인공 위성처럼 개나 쥐 등 동물들과 관측 기계들이나 들어 있고 또 영영 지구에로 돌아 오지 못할가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전의 인공 지구 위성과는 달리 사람이 즉 쏘련의 첫 우주 비행자 가가린 소좌 아저씨가 타고 있으며 아직 세계에서 누구도 날아 보지 못한 우주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첫 우주 비행자 가가린 아저씨가 앉아 있는 방은 비행기 조종실과 같은 꼭 닫겨진 방이며 (밀폐실) 여기에는 공기 없는 우주 속에서도 사람이 비행할 수 있는 공기나 기타 필요한 기계들과 장치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쏘련의 학자, 기술자, 로동자, 아저씨들이 만든 위성—비행선을 실은 로케트는 지구에서 떠나 점차 그 속도가 커져서 맨 나중에는 1 초간에 약 20리 씩이나 되는 그런 굉장한 속도 (총알의 속도의 10배)에 도달합니다. 또 이 육중한 로케트는 대단히 힘이 세여 승리 58형 화물 자동차 12,500 대가 짐을 가득 싣고 십리씩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단 몇분 동안에 해내는 그런 굉장한 로케트입니다.

이런 굉장한 속도와 힘을 가진 로케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위성—비행선을 우주 속에 보낼 수 없으며 또 그런 힘과 속도는 로케트만이 낼 수 있습니다.

로케트가 내는 속도나 그것을 발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위에 실리운 우주—비행선은 지구 주위를 돌거나 또는 영영 지구를 떠나 가기도 합니다.

로케트가 지구에서 굉장한 속도로 떠나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위성—비행선에 앉은 비행자는 피곤을 느끼나 곧 편안해 졌습니다. 위성—비행선이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였으며 이제는 굉장한 속도로 나는 우주 비행선 속에서도 아주 편안해 졌습니다. 이 굉장한 속도는 위성 비행선이 지구를 돌기 시작한 때 멀어집니다.

가가린 소좌 아저씨는 위성—비행선 속에서 무전기로써 우리 지구에 말합니다.

《안개에 쌓인 지구가 보입니다.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는 지구 우의 강, 큰 섬들, 해변들을 잘 알아 보며 처음으로 그런 높이에서 둥근 지구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위성—비행선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자 밀폐실 안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게 가벼워졌고 그것들은 밀폐실 내에서 사방으로 둥둥 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던 가가린 소좌 아저씨도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공중에 둥둥 떠 있었으며 그가 손에 놓고 쓰던 수첩이 손에서 빠져 나가군하여 단단히 틀어 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가가린 소좌는 무전도 치며 지구를 관찰도 하며 글도 쓰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갑니다.

인제는 우주 비행을 끝내고 지구로 돌아갈 때가 되였습니다.

지구로부터 무전 운전 장치가 위성—비행선에 착륙하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위성—비행선의 앞 부분에 장치되여 있는 로케트 기관이 시동되고 그는 강력한 힘으로 위성—비행선을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위성—비행선의 속도가 느리여지기 시작하자 그는 지구를 돌던 길에서 벗어나 지구에로 내려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빠른 우주—비행선이 그냥 대기속으로 들어 가면 운석처럼 순식간에 타 버립니다. 그것은 위성—비행선이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굉장한 속도를 가진 위성—비행선은 그 속도가 떠져야만 지구로 돌아 올 수 있으며 속도가 떠지지 않으면 인공 위성들처럼 계속 지구 주위를 돕니다.

무엇 때문일가요? 바께쯔 속에 물을 넣고 힘있게 돌리면 바께쯔가 거꾸로 서도 물은 아래로 쏟아지지 않지요. 만약 바께쯔를 천천히 돌리면 물은 곧 아래로 쏟아지거든요. 즉 일정한 원을 따라 돌아 가는 물체의 속도가 작아지면 그는 아래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내려 오지 않고 구부러진 선을 따라서 내려 옵니다. 위성—비행선에서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위성—비행선은 운전하던 무전 장치가 위성—비행선의 속도를 떠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빠른 위성—비행선의 속도를 느리게 해줄 수 있을가요? 동무들이 빨리 굴러 가는 수레를 천천히 가게 하려면 뒤로 계속 당겨 주지요. 역시 위성—비행선도 그 비슷한 방법으로 속도가 떠지는데 위성—비행선의 로케트가 우주—비행선을 뒤로 밀어 주기 시작합니다. 위성—비행선은 속도가 점점 떠져서 대기 속으로 들어 왔으며 대기 속에서 비행기처럼 지정된 곳을 향하여 땅으로 착륙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의 첫 우주 비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쏘련의 로케트와 우주—비행선으로 쏘련의 용감한 우주 비행사 가가린 아저씨에 의하여 수행되였습니다.

우주—비행선은 무사히 땅에 내려 앉았고 그로부터는 첫 우주 비행사 가가린 소좌 아저씨가 아주 씩씩히 내리였습니다.

사람이 우주를 나는 데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나라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주 비행선은 커녕 아직 인공 위성조차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가 보고 싶어 하던 달나라, 별 나라의 대문이 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전 세계 인민들의 큰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가가린 소좌 아저씨는 이번에 수행한 우주 비행, 그가 발휘한 영웅성, 용감성으로하여 쏘련 영웅 칭호와 첫 《우주 비행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를 앞두고

모두 다 우등, 최우등으로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평북도 동림군 신곡 중학교 통신원 김 재현이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를 모두 다 우등 최우등의 성적으로 맞이 하자고 의논했습니다.

많은 분단들에서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했는 데 아직 모두가 우등, 최우등의 수준에까진 올라 가지 못했거든요. 우등 최우등생들이 많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4 차 대회를 맞자면 아직 부끄러워요.

그래 4 분단 동무들은 《그날 배운 것은 그날에 다 알자!》라는 구호를 내 걸고 투쟁하지요.

아침에도 한 시간 전에 와서 반 별로 모여 앉아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하고요.

학교에 오갈 때에는 로어 단어와 대'수 공식도 외운답니다.

네 정말 빈 틈이 없어요.

방과 후이면 모두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느라고 야단들입니다.

네? 요지음은 숙제를 못해 오는 동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당 제 4 차 대회를 우등, 최우등의 성적으로!》

우리는 이 맹세를 꼭 실천하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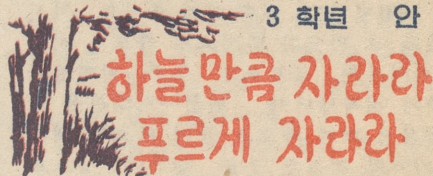
동산 기슭에 자리 잡은 집은요
새로 생긴 우리 마을 농기계 공장
인민들이 모아 간 쇠를 녹여서
발갈이 농기계 만드는 공장

저 건너 나란히 자리 잡은 집은요,
우리 엄마 일하시는 식료품 공장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 그대로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내죠.

앞내 건너 자리 잡은 저기 저 집은요
우리 누나 쉴 새 없이 천 짜는 공장
이 모든 기계 소리 노래로 들으며
최우등생 나는요 학교 가지요.

천리마로 달리는 내 고향 마을은
자꾸만 자꾸만 새 공장이 늘어요.
그래서 해마다 살림이 늘어
우리 마을 이야기 꽃 피여 나요.

강원도 창도군 당산 중학교
3 학년 안 태호

하늘만큼 자라라 푸르게 자라라

지난 봄에 떠다 심은 돌배 나무야
농약과 맑은 물 언제나 줄테니
름름하게 자라라
썽썽 자라라

큰 골안 밀림에서 떠 온 나무야
부드러운 땅 밑에
뿌리 깊이 박고서
장마도 가물도 이기자꾸나

아담한 우리 학교 어서 푸르게
가을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따게
소년단원 내 마음 그대로 안고
하늘만큼 자라라 푸르게 자라라

량강도 풍산군 신원 중학교
김 승명

우리 학교의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

여보십시오.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저는 함북 명천군 황진 중학교 단 통신원 김 길래입니다.

우리 당 제4 차 대회를 앞두고 당 대회 전으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따라 우리들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기 위한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을 더욱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단에서는 올해 매 분단마다에서 털 토끼를 더 많이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인민 반 동무들은 분단에서 50 마리, 초중 반 동무들은 80 마리씩 길러 금년 중으로 1,500 마리를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1,300 마리는 털 토끼를 기를 계획이지요. 그리하여 금년에 털 토끼의 털을 50kg를 깎을 예정입니다.

학교와 자기 집 주변 그리고 길'가에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오이도 많이 심었지요. 학교 앞에 포도원을 만들고 150 그루의 포도 묘목도 심었습니다.

어느 분단이 우수한가구요?

포도원 만들기에는 3 분단이 모범이고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오이 심기에는 6 분단이 모범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북청 회의 결정을 학습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400 평 더 많은 꼬마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숭아, 밤, 살구, 사과, 대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내가 만든 휴지통

내가 만든 수지 통
《천리마 표》 수지 통
버림 받던 종이'장
한 장 두 장 쌓이죠.

우리 애기 찢던 종이
아래'동생 쓰던 수지
모두 모두 종이 저금

아침 저녁 배가 불룩

얼마만큼 모을가?
내 키만큼 모으지
모은 파지 공장 가면
학습장이 몇 권 되나?

중학 노트 삼십 권
그림 책도 이십 권
우리 모두 쓰고 남을
각색 용지 나오지

꽁꽁 다져
수지 통에 한가득
분단 총회 의논 대로
내 키만큼 어서 몰자

자강도 초산군 무학 중학교
김 문훈

용이 어머니— 아니 그럼 반장 님도 모르는군요

순이 아버지— ?!…

용이, 순이— (뛰여 나와 소년단 경례를 하며) 안녕하세요?

순이 아버지—오 너희들이구나

용이 어머니—아니 너는 첫 새벽부터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니?

때— 5월
곳— 어느 협동 마을 벌판에서
나오는 사람
　순이 아버지— 작업 반장
　용이 어머니— 작업반원
　순이— 소년단원
　용이— 소년단원

순이 아버지— (거둔팔에 삽을 들고 나오며) 누가 또 밤 사이에 깜쪽 같이 모를 뽑아다 펴 놓았나?

용이 어머니— (뛰여 나오며) 반장님, 아니 그런데 빈 모판에서 모를 뽑으란 말이예요?

순이 아버지— (머리를 긁으며) 글쎄 말입니다.

용이— 네… 그저… (머리를 긁다가) 아저씨, 우리 분단에서 오늘 모내기를 돕기로 결정했는데요.

순이 아버지— 음,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야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순이—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은 일요일인걸요. 공부도 잘 하고 100만 톤 증산도 도우면 더 좋잖아요.

순이 아버지—그럼야 더욱 좋지만 그게 그리 쉽겠니.

용이—우리 분단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당 제 4차 대회를 앞두고 공부도 더 잘하고 100만 톤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도 힘껏 돕자고 결의했거든요.

용이 어머니— (아들을 장한듯 바라 보다가) 아니 너 바지는 왜 그렇게 젖었니?

용이— 네… 저 오다가 그만 논'고에… (우물우물하다가) 아저씨 어서 일'감을 주세요.

순이 아버지—(바지에 묻은 모 잎을 보고 싱글싱글 웃으며) 장하다 참 장하다. (용이를 번쩍 들었다 놓는다.)

순이— 어서 빨리요. (발을 동동 구른다.)

△ 멀리서 소년단원들의 노래'소리 들려 온다.

용이— 아저씨 어서…

순이 아버지— 좋다. 그럼 선전실 앞에서 모를 뽑아라.

용이—모는 어제'밤 순이네 반에서 다 뽑았어요.

용이 어머니— 아니 반장님은 딸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시나요?

순이 아버지— 그러면 그 모를 날라라.

순이— 호호… 용이네 반에서 새벽에 다 운반했는걸요.

순이 아버지— 응?! 아주머닌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시는군요. 하하…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 나도 모르게…

△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워 온다.

용이— 아저씨가 안 계셔서…

순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요.

순이 아버지—좋다. (두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두리며) 그러면 너희들 소원대로 우리 함께 첫 모를 심자.

△ 이때 소년단원 5~6명 들어 온다.

소년 단원들—안녕하십니까?
우린 소년 선전 예술대원들이예요. 우리들은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우려 왔어요.

순이 아버지—아니 선전 예술대 꼬마들이야 노래하고 춤을 춰야 하잖겠니.

선전 예술 대원— 그러기 이제 한바탕 일을 하고 이따 쉬는 시간에 하는 것두요.

일동— 옳습니다.

순이 아버지— 참 우리 어른들이 아직 멀었구만.

용이 어머니— 그래요. 저 애들까지 저렇게 이악스러우니 100만 톤 증산이야 문제 없지요.

선전 예술 대원— 여러 아버지 어머니들! 다아 오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 500만 톤 황금 나락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포기마다 붉은 마음 다해 모를 심읍시다.

일동— 심읍시다! (힘차게 웨치고 용진가 높이 부르며 나간다.) (끝)

소년단원 동무들의 동요 동시를 읽고

리원우

《소년단》 작년 12월 호를 비롯해서 금년 3월 호까지엔 소년단원들이 쓴 동요와 동시들이 10 여 편 실려 있다. 어디 사는 동무들이 이런 글들을 써 보냈는가 하고 보니 전국 방방곡곡에 사는 소년단원들이 써 보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쓴 동요 동시들을 읽으면서 내가 본 것은 공화국 학생 소년들이 무엇에 감격하며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이다. 누구의 동요 동시들을 읽어 보나 거기엔 조선 로동당 시대라고 부르는 우리 시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우리 생활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정열, 흥분과 감격이 없이는 동요나 동시를 한 줄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생활이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로동당 시대의 생활이다.

동무들은 자기가 쓴 동요 동시에서 로동당 시대에 살고 있는 소년 시절의 감격과 즐거움 그리고 지향을 노래 부르고 있다. 이것이 동무들이 쓴 시가 거둔 성과이다.

소년 선전 예술대 나아간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둥둥둥 북을 울리며 나아간다.
금물'결 출렁일 500만 톤 협동'벌로
붉은 넥타이 펄펄펄 날리며

(동시—우리 분단 나아간다) 렴 창복

이 동시에선 소년 선전 예술대에 떨쳐 나선 우리 소년단원들의 씩씩하고 늠름한 기백이 라팔 소리처럼 울리고 있다. 힘이 부쩍부쩍 나는 것 같다.

꼬마 돌격대 나아간다.
잠든 버들개지 어서 깨라고
뛰떼뛰떼 라팔 불며 나아간다.
잠들었던 구석 땅도 다 깨워 일으키며
모은 거름 가득 싣고 우리 분단 나아간다.

아마 이 동시를 읽고는 그 어떤 게으름뱅이 소년이라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잠든 산, 잠든 땅을 깨우려 뛰여 나가고야 말 것이다.

시란 다만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된다. 시란 아름다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주는 굳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동시는 그런 힘 — 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나 동요엔 소년단원들의 기쁨과 자랑도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기쁨과 자랑이 많은 시대인 까닭이다. 함북 화대군 금성 인민 학교 최 국동 동무는 자기 동요《자랑》에서 다음와 같이 쓰고 있다.

최우등의 영예로
새 해를 맞은
나는요 기뻐요
참말로 자랑차요.

내 자랑 많자
마을 자랑 많아요
집집마다 쌀독 차고
라디오 소리 재봉침 소리

이 학생은 자기 기쁨을 노래하는척 하고 자기 마을 우리 나라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자강도 자성군에 사는 김 동수 동무는 조국 통일을 손꼽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동요 《고향 가고 싶대요》에 쏟아 놓고 있다.

기차가 칙칙 폭폭
집 앞을 지날 때면
내 동생 영남이도 기관사가 되지요.
형님이 사다 준 작란'감 기차를
한 줄에 주루루 매여 가지고
공화국기 날리며 남녘 땅 간대요.
(중략)
기차 놀이 신이 난 내 동생 영남이
나더러 학교 갔다 어서 오래요.
꼬마 기차 타고서 함께 가자고

이 동요를 읽노라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도 기관사가 될 것을 속으로 공상하는 어린 영남이, 그 마음 속 알아차리고 작란'감 기차를 사다 준 형님, 그 꼬마 기차 타고 공상 속에서 남조선으로 날고 있는 그 정신, 이런 영남이는 우리 나라 방방곡곡 어디나 살고 있다.

이런 영남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주고 받는 말을 통하여 남조선 사람들이 굶어 산다는 것과 쓸어져가는 오막살이가 많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꼬마 기차에 《집 짓기 놀음'감》을 싣고 남조선에 아빠트를 지여 주려고 가는 것이며 학교 가는 형더러 어서 학교 갔다 와서 자기랑 함께 아빠트 지어 주러 남조선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는 기차 놀이, 집 짓기 놀음과 같은 유희 과정에서 커가는 것이다.

아빠트 짓는 놀음을 하면서 미래의 천리마 기수로 자라고 있으며 꼬마 기차를 줄에 매는 유희 로동 과정에서 그 팔과 다리는 굵어진다.

바로 이 동요엔 이러한 유년, 소년들의 생활이 반영되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10 여 편이나 되는 동요 동시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럼 10 여 편의 동요 동시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적을 미워하며 새 것을 옹호하고 낡은 것을 때려 부시려는 기백이 소년들의 언어로 씌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무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동요 동시에서 걷우고 있는 이 성과를 계속 살려야 하며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른들의 시를 흉내 내지 말 것과 공연히 멋이 있게만 쓰려고 말을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가 느낀 것을 소박하게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만하자. 안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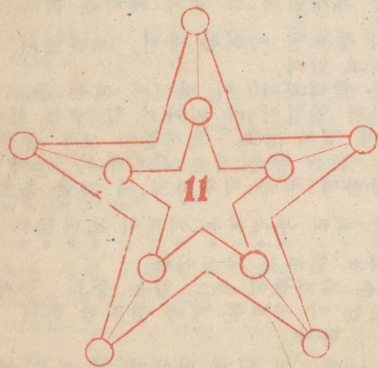
현상 문제

어떻게 놓을가요?

그림과 같이 5각 형 안에 작은 오각 형이 있습니다.

매 5각형 마다에 5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수'자 1~10까지를 매 5각 형의 동그라미 안에 각각 넣되(사용한 수'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큰 5각형과 작은 5각 형의 연결된 두 각의 동그라미 안의 수'자를 합한 것이 각각 11이 되여야 합니다. 또한 큰 5각 형의 5개의 동그라미 안의 수'자를 합한 것에서 작은 5각 형의 5개의 동그라미 안의 수'자를 합한 수를 떼여 낸 수'자가 11이 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1~10까지의 수'자를 매 5각 형의 동그라미 안에 넣겠습니까?

(흥미 있는 실험)

개구리 《전지》

동무들은 개구리를 잡아다 이런 실험을 해 보십시요.

개구리 (죽은 개구리도 된다)의 척추에 아연 선을 끚고 다음에는 다리에 동선을 끚은 후 두 선을 이어 보십시요. 그러면 개구리의 다리는 경련(바르르 떤다)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개구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 전지는 특수한 용액(류산 용액)에 두 종류의 금속 판(아연 판과 동 판)을 담근 것입니다.

개구리의 경우에는 류산 용액이 아니고 다른 용액이지만 전기를 일으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5 호 (총 139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179 값 25 전 150,000부 발행

모형 항공기

① 기수 만드는 재료—두터이 10mm 길이 270mm의 소나무 판자로 그림의 모양대로 만든다.

② 후부동체—길이 40mm, 너비 10mm, 두터이 10mm의 소나무 각재를 뒤가 약간 가늘게 대패로 밀고 기수에 고정시킨다.

③ 주익소골—두터이 2mm의 엷은 판자를 칼로 그림과 꼭 같은 크기로 따 낸다.

④ 주익 비치개—소나무 각재를 그림에 표시된 크기로 만들어 주익을 조립한 다음 중앙부에 애교풀로 부치고 앞 뒤를 실로서 감아 든든하게 고정시킨다.

⑤ 앞날개—두터이 3mm, 너비 5mm의 소나무 각재를 소골 앞 홈에다 애교풀로 부친다.

⑥ 도리'대—두터이 8mm, 너비 4mm의 소나무 각재를 소골 앞으로부터 약 3분의 1 되는 위치의 홈에 끼운다.

⑦ 뒤'날개—두터이 3mm, 너비 8mm의 소나무 판자에 소골을 끼울 홈을 파고 고정시킨다.

⑧ 모형 항공기의 기수 앞 부문에 구멍을 파서 납과 같은 무거운 것을 넣고 중심이 앞 날개로부터 약 3분의 1 위치에 오도록 맞추고 엷은 판자를 덧 부친다.

※ 수직미익과 수평미익은 평탄한 책상 위에서 그림에 표시된 크기로 조립한 후 동체에 고정시킨다.